

세상을 지키는
따뜻한 사람들

교정

교정 공무원 문화교양지

2018.09

Vol. 508



CREATIVITY

반짝이는 생각으로 특별한 하루를 창조하는 삶!
세심한 관찰로 새로운 발상을 이끌어 내보자.



가을의 정취가 펼쳐지기 시작하는 9월입니다.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하루를 만끽하며
새로운 생각들을 떠올려 보는 것은 어떨까요.
월간 <교정>이 많은 내일을 다듬어갈 당신을
응원하겠습니다.

교정공무원 문화교양지
교정 2018년 9월호 (통권 508호) 62권 9호
www.corrections.go.kr

발행인 최강주 법무부 교정본부장
인쇄 서울남부교도소
기획디자인 반디컴 02)2272-1190

월간 교정은 법무부 교정본부 홈페이지 또는 교정공제회 홈페이지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책의 무단전재나 복제를 금합니다.
수록된 내용은 법무부 교정본부의 견해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페이스북 주소 www.facebook.com/mojcor

카카오톡 아이디 mojcor

페이스북과 카카오톡에서 '법무부 교정본부'를 검색하시면 친구를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Contents

- 04 포토 이슈
'부모 직장 체험의 날' 행사 개최

Colorful Think

- 06 Theme Column
9월의 컬러, PURPLE
모든 경계를 넘어 무한으로 확장하다
- 08 Theme People
시와 함께 치유와 감동의 나날
시인 ·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 이승하
- 12 Theme Talk
역사는 짧아도 성과는 빼곡히 채워지다
상주교도소
- 16 Theme Advice
이전에 없던 생각이 빚어지는 순간
: 창의성을 키우는 방법



Cheerful Life

- 18 교정은 행복을 신고
재즈와 함께 즐긴 늦여름의 행복
충주교도소
- 24 아빠! 어디가?
가족, 사랑을 신고 함께 향해하다
목포교도소 교위 김성규 가족
- 28 어느 멋진 날
어느 날이든 동료에는 '맑음'
서울동부교도소 보안과 교사 장세호 · 이선형 · 김범근
- 32 패밀리 프로젝트
삶의 여정을 함께 오르듯이 : 가족과 함께 가을 등산하기
- 34 습관의 건강학
면역력, 내 몸에 깃든 슈퍼의사 : 환절기 면역력 키우기
- 36 히어로 코믹스
악을 응징하며 세상을 구하기 위해 나타난 교정맨
- 40 교정 인사이드
'정의'가 돈에 갇히지 않도록



Correction Story

- 42 교정 글마당
강릉교도소 보안과 교위 김광남, 목포교도소 보안과 교위 유영준
- 44 교정 포커스
교정 가족의 정신을 치유하다
- 46 교정 리포트
독일 교정공무원 교육훈련 시스템 관련 자료수집
- 52 지상강좌
교정학
- 54 교정뉴스
본부 소식 & 일선기관 소식
- 62 교정 스타그램
창의를 담은 사진 열전
- 64 BOOK MARK
'창의'를 쌓게 해주는 책들
- 66 이달의 공연





Photo Issue

여름이 끝을 향해 치달았던 8월, 교정본부는 특별한 행사를 펼쳤다. 교정본부 직원 가족들이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도록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그 현장을 살펴보도록 하자.



'부모 직장 체험의 날' 행사 개최

교정본부는 지난 8월 14일 교정본부 사무실 등에서 교정본부 직원 및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직장 체험의 날' 행사를 개최하였다. 직원 가족들의 유대감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법무부 교정본부가 하는 일'이 소개된 후 본격적인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보드게임 및 레크리에이션으로 구성된 '부모와 함께하는 놀이시간'이 펼쳐졌으며, 본부장실 방문, 부모 직장 체험 및 오찬, 감사 편지쓰기 등의 행사가 이어졌다. 이를 통해 직원 자녀들은 부모님의 직업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소속 직원들은 직업에 대한 자긍심을 높였다.



• PURPLE

9월의 컬러

모든 경계를 넘어

무한으로 확장하다

눈을 감아 우주의 색을 상상해보자. 누구도 그 세계의 형상을 헤아릴 수 없기에 암흑으로 그리는 편이 가장 쉬운 방법이겠지만, 어떤 빛이 한 통로를 지난다고 가정한다면 아마 그 색을 퍼플로 칠하게 되지는 않을까. 현실에서 벗어난 미지를 유명하다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신비롭고 아름다운 분위기를 가지고 있어서다.

온기와 냉기가 교차하는 순간

퍼플은 레드와 블루가 혼합되어 탄생된다. 뜨거움을 상징하는 레드와 차가움을 의미하는 블루. 양극단에 머물러 현실에서는 절대 부딪히지 않는 컬러가 만난 만큼, 퍼플은 폭발하는 우주에 박힌 별처럼 오묘하고 신비로우며, 고귀한 느낌마저 불러일으킨다.

신체와 정신, 행동과 감정, 현실과 영적 세계. 마주 보며 걸려 있는 두 지점을 뛰어넘어, 무한한 영역으로 확장하는 컬러가 퍼플인 것이다. 그래서 퍼플은 미지의 신비를 암시하고 수수께끼의 길을 밝혀주는 컬러로 작동한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우주를 그릴 때, 인간의 힘으로는 가히 흉내 낼 수 없는 기상 현상인 오로라를 떠올릴 때 그 세계와 빛의 색을 퍼플로 채우는 이유다.

열정과 지성이 합쳐졌으므로 퍼플은 한 영역에서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내포하기도 한다. 능동적인 단계에서 수동적인 단계로, 남성에서 여성으로, 또한 삶에서 죽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함축된다.

세상의 복잡한 경계를 지워내다

두 가지 속성을 모두 갖고 있는 특성 때문일까. 보라색의 파장은 행동의 자극과 감정의 완화를 통해 균형을 맞추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인간의 신체 중 뇌 속의 감각중추, 뇌하수체에 작용하여 정신적인 자극을 준다. 슬플 때에는 기운을 주고, 흥분을 가라앉히고 싶을 때에는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색, 퍼플. 결코 1차원으로 설명되지 않는 복잡한 효용이 이 색에 내재되어 있다.

퍼플은 그 미묘한 특성을 갖고 있어 예술가가 가장 탐내는 색이기도 하다. 실제로 자의식이 강하고, 창의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퍼플을 좋아한다고 한다. 복잡한 심리 상태를 가지는 예술가의 특성과 잘 어울리는 부분이다.

어쩌면 우리가 무언가를 창조하는 일은 많은 경계로 얽히고설킨 현실 세계에서 편견이라는 선들을 지우고, 영역들을 넘나들며 관찰하는 일에서 비롯될지도 모르겠다. 극단의 지점에 놓인 영역을 함께 품은 퍼플처럼, 우리 역시 모든 문을 활짝 열어놓고 나의 세계를 다시 재구성해보는 것은 어떨까. 번뜩이는 섬광이 스쳐 지나가듯, 찬란하고 반짝이는 생각이 떠오르지 못할 일이다.

깨알 지식

‘about PURPLE’

퍼플은 페미니즘의 색으로 불리기도 한다. 20세기 초 영국에서 참정권 운동을 벌인 여성들이 당시 흰색, 녹색과 더불어 보라색을 페미니즘과 여성운동의 색으로 발표했기 때문이다. 특히 보라색 장미는 페미니즘의 상징처럼 여겨지고 있는데, 이는 국제 여성의 날이 유래한 1908년 미국 여성 노동자들이 여성의 생존권과 참정권을 요구한 러트거스 광장 시위에서 “빵과 장미를 달라”라는 구호를 외친 것에서 비롯되었다.

시와 함께 치유와 감동의 나날



폭력과 광기의 나날

푸른색 수의를 입은 수용자들을 마주 보는 자리에 말끔하게 양복을 차려입은, 한눈에도 지식인 분위기가 물씬한 중년의 남자가 서 있다. 남자가 처음 인사를 건넸을 때, 순순하게 인사를 받거나 돌려주는 이는 없었다. 순간 당황했으나 어느 정도 예상했기에, 남자는 본론인 '시 치료'는 뒤로 밀쳐두고 자신의 이야기부터 꺼냈다. 분노와 폭력으로 의사소통했던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 옆에서 몸과 마음이 성할 날 없었던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정신질환을 앓게 된 누이 얘기까지. 그즈음 고개를 들어 남자를 쳐다보는 수용자가 하나둘 생겨났다. 경계로 차가웠던 눈빛도 차차 누그러졌다. 그렇게 남자가 먼저 마음 안쪽을 열어 보였고, 그제야 일말의 동질감과 선의를 읽은 수용자들이 자세를 고쳐 앉고 그의 이야기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10여 년 전 어느 날, 이승하 교수가 '시 치료 프로그램'을 위해 맨 처음 영등포구치소를 찾았을 때의 일이다. "아버지한테 주기적으로 폭언과 폭력을 당하거나 부부싸움이 잦은 집에서 자란 아이들은 영혼이 일그러져요. 저 역시 그런 아이 중 하나여서 사춘기 시절 가출을 일삼고 자살기도까지 여러 번 했죠. 그래서 불우한 성장환경에서 방황하다 결국 길을 잘못 든 사람들을 보면 동병상련 같은 감정을 느끼게 돼요. 수용자들을 만났을 때도 그랬죠."

실제로 아버지의 분노와 폭력으로 불안정한 환경에서 청소년기를 보낸 그는 마음의 고장이 몸에까지 미쳐 10대 후반부터 20대 후반까지 말더듬증을 비롯해 대인공포증, 신경쇠약, 불면증, 신경성위궤양 등에 시달렸다. 시는 그 시절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고통의 수렁에서 허우적대는 그를 구해내는 동아줄 같은 거였다.

믿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승하 교수가 문학의 세계를 처음 접한 건 초등학교 때였다. 당시 김천문화원에 다니던 이모 덕에 그곳 도서관에서 학원세계명작과 계림세계명작 같은 문고를 빌려본 게 시작이었다. "글을 쓴 건 중학교 때 국어 과목을 담당하셨던 권태을 선생님 덕분이었어요. 문예작품 공모전에 출품한 제 글을 인정해주셨고, 3년 동안 심사지도도 해주셨죠. 고등학교 입학 후 장기결석으로 퇴학을 당했을 때도 이런 경험이 나중에 글 쓸 때 자양분이 될 거라고 오히려 힘을 북돋아 주셨어요." 일찍이 그의 필력을 알아본 이는 또 있었다. 어머니였다. 일제강점기 시절 경성여자사범학교에 다닐 정도로 엘리트였던 그의 어머니는 한때 교사로 재직한 만큼 교육계 현실에 밝았을 뿐만 아니라 자식의 진로에 관해서는 선견지명이 남달랐다. "사춘기 시절 방향을 많이 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서울대 법학과에 들어간 형이 학부 2학년 때 사법고시 1차 시험에 합격하자 그렇지 않아도 높은 장남에 대한 아버지의 기대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어요. 한데 정작 형은 2차 시험 준비는커녕 문학을 하겠다고 선언했죠. 그때부터 전직 경찰관인 아버지의 '폭력과 광기의 나날'이 시작되었고요. 그런 집안 분위기를 도저히 견디지 못해 급기야 편지 한 통을 남기고 가출을 강행했는데요. 그때 봉투 겉면에 '유서'라고 써놓은 편지를 보고 그 와중에도 어머니가 저의 글재주를 알아보셨죠."

시인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

이승하

어느 시인에게 시가 '데려다주는' 것 이라면, 시인이자 중앙대에서 문예창작학과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승하 교수에게 시는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일종의 의식이다. 한때 밀도 높은 어둠에 짓눌렸던 자신에게, 또 수용자들을 포함해 우리 사회의 구석진 곳에서 몸과 마음을 편히 누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들에게 시를 건넨 이유일 터. 그가 펴낸 시집 제목이기도 한 '폭력과 광기의 나날', '감시와 처벌의 나날', '공포와 전율의 나날'을 지나 시와 더불어 치유와 감동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승하 교수를 만났다.

중앙대 문예창작학과에 지원한 것도 어머니의 권유에서였다. 아버지의 반대는 거셴지만, 결과적으로 형은 서울대 국문학과 3학년에 학사 편입해 석·박사를 거쳐 서울시립대 국문학과 교수로 학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 또, 그런 형을 롤모델 삼은 이 교수는 중앙대 문예창작학과 졸업 후 석·박사를 마치고 창작자이자 모교의 문예창작학과 교수로 살아가고 있다. 하루도 바람 잘 날 없었던 집안 환경에도 꿋꿋하게 자식들이 나아갈 길을 지지하고 이끌어준 어머니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시를 매개로 수용자들에게서 끌어낸 착한 마음

어머니와 선생님의 믿음에 힘입어 창작자가 된 이승하 교수가 조금씩 내적 상처를 치유한 건 시를 가까이하면서부터. 덕분에 들끓었던 마음이 잔잔해져갔고, 일그러졌던 영혼도 편편하게 펴졌다. 10년 전부터 꾸준히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시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해온 건 이렇듯 자신이 경험한 시의 순기능을 나누고 싶은 바람에서였다.

“죄목에 상관없이 수용자들도 마음 깊숙한 곳에 선심, 동정심, 협동심, 희생정신 같은 것이 있습니다. 시는 그런 마음을 끄집어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그들에게 펜과 종이를 주면 제각기 무엇인가를 쓰는데, 매번 느끼지만 글을 쓸 때에는 그들의 마음이 한없이 착해져요. 그런 마음으로 쓴 시를 보면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이 교수는 지난해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가진 시 치료 프로그램에서 한 수용자가 지은 ‘숨바꼭질’이라는 제목의 시를 보고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는 감동을 맛보았다. 평소 딸과 즐기던 숨바꼭질을 현재 자신의 처지와 연결해 딸에 대한 깊은 그리움을 담아낸 시로, 기성시인 못지않은 시적 묘미를 살려낸 것. 이 교수는 내내 덩달아 표정이다가 그의 진심 어린 칭찬을 듣고 환해지던 수용자의 얼굴도 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제가 만난 수용자들 대부분은 시를 처음 써보는 이들이예요. 칭찬 역시 태어나 저에게 처음 들은 이들이 적지 않죠. 그래서 그들이 쓴 시를 온 마음을 다해 칭찬해주는 걸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그 순간 주고받은 교감 또한 시 치료 프로그램이 갖는 소중한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요.”



세상을 지키는 따뜻한 사람들, 교정



“매번 느끼지만
글을 쓸 때에는 그들의 마음이
한없이 착해져요”

좋은 시는 마음속 온갖 때를 사라지게 한다

“공자가 <논어>에서 ‘詩三百一言以蔽之曰思無邪’라는 말을 했는데요. ‘좋은 시 300편을 외울 정도로 읽으면 마음속 온갖 때가 다 사라진다는 의미죠. 일제강점기 때는 시인이 모국어(한국어)를 지켰고 군사정권 시절에는 시가 사회비판적 기능을 증대시켰다면, 요즘 시대는 지나치게 난해하거나 상업적인 대중시보다는 사람에 대한 깊은 성찰과 따뜻한 위안을 담은 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교수로서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부분이자 시인으로서 제가 쓰고 싶은 시이기도 합니다.”

이 교수의 이런 바람은 그간 펴낸 시집과 시 창작에 도움이 될 만한 저서들에 잘 담겨있다. 즉 앞서 말한 <감시와 처벌의 나날>을 비롯해 <폭력과 광기의 나날>, <공포와 전율의 나날> 등의 시집으로 우리 사회 어두운 곳을 바라보는 시인의 공감 가득한 성찰과 위안을 건넸다면, 시집 <나무 앞에서의 기도>와 <아픔이 너를 꽃피웠다>에는 물질이 인간을 지배하는 시대일수록 사랑의 실천과 사랑의 확신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또 <이승하 교수의 시 쓰기 교실>과 <시 어떻게 쓸 것인가?> 등에서는 제자들을 포함해 습작기의 사람들이 읽고 시 창작에 도움받는 건 물론 직접 시를 쓰면서 스스로 치유하고 회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조언했다.

이처럼 활발한 창작활동과 수용자들을 비롯, 사회적 약자들과 시를 나누는 사회 봉사활동 등을 통해 이승하 교수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결국 하나로 귀결된다. 자신이 그랬듯 시로써 용서를 하고 용서를 받고,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온 마음으로 느껴보는 것. 그래서 삶을 불안하게 하는 어둠을 한 뼘이라도 몰아내는 것이다.

시, 마음을 완전히 고치는 하나의 처방전

10년 전부터 꾸준히 수용자들과 인연을 맺어오고 있는 이 교수는 이를 계기로 법무부에서 파내는 계간 문예지 <새길>의 심사를 맡고 있다. 수용자들이 쓰는 ‘테마수필’과 ‘용서의 글’, 그리고 교정공무원들의 문예작품까지 100여편을 받아 그중 20편을 고른 후 정성을 다해 평을 쓴다. 주로 시 치료 프로그램과 문예지 <새길>을 통해 수용자들의 글을 읽고 독려 차원의 평을 써왔지만, 시인으로서 이들의 이야기를 시에 담아 시집으로 묶기도 했다.

“2016년에 펴낸 <감시와 처벌의 나날>이 그것인데요. 절반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누이동생을 계기로 30년 넘게 찾고 있는 정신병동을 소재로 삼았고, 나머지 절반은 바로 그동안 가까이에서 보고 느낀 수용자들의 이야기를 시로 담아냈죠. 대체로 어두운 편이지만 밝은 앞날을 꿈꾸는 그들의 희망을 노래한 시도 적잖은데요. 죄를 지었으니 당연히 죄값을 치르되, 재범의 유혹에 빠지는 일 없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아갈 길 바라는 마음이 반영된 시들이죠.”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범법자들의 재범률은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이 교수는 “여기에는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하겠지만 시 치료 프로그램을 포함한 올바른 문학교육과 인문교육을 통해 마음을 완전히 고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랜 기간 수용자들 대상의 시 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시가 어긋난 마음의 결을 맞추어 삶의 자세를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목도한 까닭이다.



역사는 짧아도 성과는 빼곡히 채워지다

상주교도소

새로운 생각을 떠올리려면 마음이 평온해야 한다. 복잡한 감정들이 쌓이고 온갖 고민에 치여 있다면, 쉽게 아이디어가 도출될 리 없다. 그런 면에서 상주교도소는 창의성을 발휘하기 좋은 곳이다. 밖으로는 평화로운 운치가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안으로는 직원들이 서로를 배려하며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다. 덕분에 직원들은 짧은 역사를 가진 상주교도소에서 빛나는 성과를 드러내고 있다. 여기, 그 주인공들의 이야기가 있다.



세상을 지키는 따뜻한 사람들, 교정

자연을 벗 삼아 세워진 곳

2014년, 전국에서 52번째로 개청된 상주교도소는 전국기관 중 제일 '막내'다. 건물이 지어진 지 오래되지 않은 만큼 시설이 깨끗해 쾌적한 근무환경을 자랑하고 있다. 주위를 둘러싼 자연 경치도 빼어나 입구에 들어서기만 해도 가슴이 탁 트일 정도다. 그야말로 자연 한가운데에 이곳 상주교도소가 놓여있다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니다. 그래서일까. 오늘 상주교도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위해 모인 직원들의 얼굴에는 어두운 기색 없이 다들 평온함이 비쳤다.

“상주교도소는 다른 소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무 환경이 괜찮다”고 첫 마디를 꺼낸 보안과 김도년 교감이 소의 장점들을 차분히 설명하기 시작한다.

우선 상주교도소에는 1인 독거실이 많아 수용자들끼리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낮다. 또한 다른 소에 비해 문제 수용자의 수가 많지 않은 편이다. 바로 이점들이 직원들의 근무 부담을 덜어주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론 근무 환경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고 상주교도소 직원들이 일을 소홀히 한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자신이 맡은 일에 더 집중하고, 몰입한 덕분에 상주교도소는 지난해 전국 기관 평가에서 청렴도 1위를 차지했다. 민원인들의 설문도 반영된 결과로, 직원들이 평소 민원인들에게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대목이다.

개정 이래로 수용자들의 자살, 도주나 화재 등 교정 사고가 1건도 발생하지 않은 점도 눈여겨볼 만 한 성과다. 이에 대해 보안과 김현주 교위가 친절하게 설명한다.

“수용자를 선별해 개별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기초질서 등을 교육하며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입 교정공무원이 들어오면, 문제 수용자들에 대한 정보를 꼭 전달하고 있고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용자들을 꼼꼼히 신경 쓰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면에는 장단점이 있듯이, 소에도 불편사항은 존재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쉽지 않은 여건이다. 박순록 의료과장이 이야기를 덧붙였다.

“상주역까지 가려면 15km가 걸리니 마을에서 자주 이동하기가 쉽지 않은 않습니다. 주변에는 문화 체험을 할 만한 곳은 커녕, 식당도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그럼에도 소 안을 둘러싼 아름다운 산세를 보고 있노라면, 상주교도소에서 근무하는 지금이 참 행복하다고 느낍니다.(웃음)”

동료들과 의미를 쌓는 동아리 활동

문화 활동을 누리기 힘든 직원들은 동아리 활동을 통해 그 갈증을 해소하고 있다. 운동, 음악, 악기 등 무려 11개에 이르는 다양한 종류의 동아리가 활성화된 이유다. 특히 자연과 가까운 지리적 환경을 십분 활용한 ‘야간보행 동아리’는 소 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동아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동아리 회장으로 활동하는 김도년 교감은 다른 직원들에게 동아리의 장점을 설파하며 회원들을 불러 모으고 있다.

“40명 정도의 회원이 있습니다. 많게는 20명 정도, 매주 야간 보행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야근이 많은 교도소 특성상 동아리가 잘 운영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는데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는 덕분에 지금은 문제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밤마다 직원들끼리 걸으면 돈독하게 동료애도 다질 수 있고, 무엇보다 건강에 도움이 되어서 참 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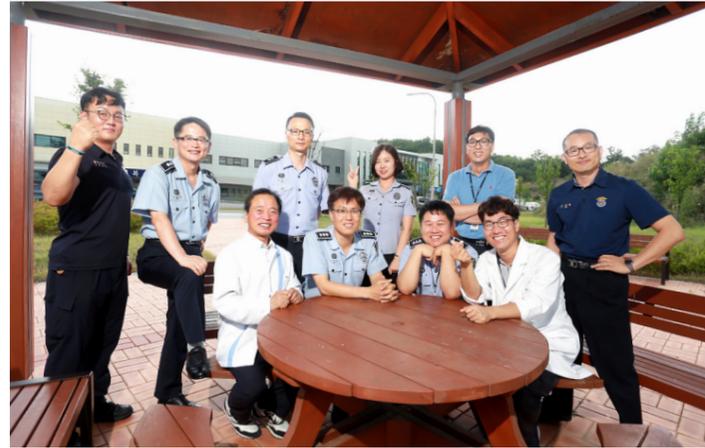


2018. SEPTEMBER



꾸준히 걷기를 했던 덕분에 2년 전보다 몸무게가 20kg이나 줄었다는 김도년 교감은 앓고 있던 질환들을 고쳤다고 살짝 귀띔한다.

기부와 봉사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달팽이 봉사단'도 대표적인 인기 동아리다. 특히, 기부금을 전할 때는 전 직원들이 참여하는 것이 특징이다. 십시일반으로 돈을 모아 장학금을 지원하고,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을 위해 기부한다고 한다. 지역 신문에 작게 내용이 실릴 때면 직원들은 모두 뿌듯함을 가진다고. 한마음 한뜻이 된 직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조용한 마을 상수에 오롯이 번지고 있다.



교정교화라는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다

상주교도소는 수용자들에 대한 배려도 남다르다. 늘 술선수범하며 수용자들을 인간적으로 대하고 있다. 최근에 일화 하나 있었다. 바로 물 사용량을 최대한 절약하기 위해 직원들이 함께 노력한 것이다. 이번 여름, 기록적인 폭염으로 수용자들의 물 사용량도 늘어났는데, 직원들은 수용자들의 물 사용량을 제한하는 대신 자신들이 먼저 물을 절약하며 본보기를 보였다.

또한 수용자 중 위급한 환자가 발생하면, 형 집행을 정지한 후 최대한 외부에서 진료를 받게 해주는 점도 수용자를 위한 배려 중 하나다. 이외에도 소소하게는, 제조 작업 등 소내 곳곳은 일을 수용자들의 도움을 바라지 않고 직원들이 직접 도맡아 하는 점, 이비인후과 전문의 출신인 박순록 의료과장이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용자들의 진료를 봐주고 있는 점도 사례들이다. 김현주 교위는 "이러한 크고 작은 모든 노력들이

곧 수용동 내 자살 사고나 위협 상황을 막는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체험형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독서치료 프로그램 등 수용자를 위한 다양한 교정교화 활동을 진행하며 수용자들을 치료해 출소 후 올바른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처럼 자신의 자리에서 맡은 바 임무를 다하고 있는 직원들은 앞으로도 변함없이 최선을 다해 근무할 것을 다짐하였다. 때론 수용자를 보살피고, 때론 엄격히 감독하면서 교정교화라는 본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기에 상주교도소는 짧은 역사 안에서 차곡차곡 성과를 쌓아가고 있는 것이리라. 그 노력의 땀방울은, 무수한 계절이 지나가는 동안에도 언제나 직원들의 이마에 송골송골 맺힐 듯 보였다.

상주의 가 볼 만한 곳

경천대

솟아오른 바위 위로 푸른 하늘과 햇살이 걸리고, 아래에는 금빛으로 물든 모래사장이 펼쳐진다. 낙동강 천삼백 리 최고의 절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경천대이다. 굽어 흐르는 낙동강의 모습과 주변 경관이 어우러지는 모습도 무척이나 아름답다. 정상까지 오르는 오솔길에는 황토 자갈이 깔린 산책로가 펼쳐지는데, 맨발로 흙을 밟으면서 시원한 발 마사지를 즐기는 것도 산뜻한 경험이다. 경천대 관광지 내에는 전망대는 물론 목고, 출렁다리, 눈썰매장 및 식당, 매점 등이 갖추어져 있어 가족들이 나들이를 떠나기도 좋다.

*사진제공 : 상주시청



Theme Talk

'창의'의 단상들을 들어보다



의료과장 박순록

개인적으로는, 수용자들이 지금보다 훨씬 줄어드는 사회를 꿈꾸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반짝이는 교정교화 정책이 많이 마련돼 재범 방지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감 김도년

교차로 녹색 신호등도 횡단보도 신호등처럼 카운터 된다면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평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 아이디어가 현실로 나타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교감 최윤석

악기 연주를 즐겨합니다. 저녁에는 일기를 쓰거나 자주 책을 읽고요. 이러한 취미 활동으로 마음이 안정되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나 창의적인 생각이 떠오르곤 합니다.



교위 김현주

담장 안에서만 생활하다 보니 사실 창의력을 발휘하는 일이 쉽지 않은데요. 평소 등산이나 여행을 통해 새로운 생각, 아이디어를 떠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위 오택훈

교정공무원으로 수용자를 관리하는 데 여러 가지 창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독과 보살핌, 그 모든 역할이 필요한 만큼 일을 적절하게 조율하는 과정이 곧 창의라고 생각합니다.



교사 김미선

퇴근 후 만화방에서 만화책을 보는 게 요즘 취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취미를 발견하는 일도 인생의 또 다른 창의가 아닐까요.



교사 김정훈

제게는 두 딸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원래 용도와 전혀 다른 용도로 물건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놀랄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했는데, 이러한 아이들의 모습에서 창의성을 엿보는 것 같습니다.



식품위생서기 주인덕

늘 새로운 음식 메뉴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제게는 그 일 자체가 창의력을 발휘하는 활동입니다. 직원들이 식사시간을 기다릴 수 있도록 새롭고 맛있는 음식을 많이 준비하겠습니다.



공업서기보 이필주

이번 여름은 기록적인 폭염으로 물과의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절수형 샤워기를 도입하는 등 많은 아이디어를 도출하면서 물을 절약하기 위한 일들을 총동원하였습니다.

이전에 없던 생각이 빛어지는 순간 : 창의성을 키우는 방법

교정공무원들에게 '창의'는 먼 단어처럼 느껴질 수 있다. 한정된 공간에서 정해진 체계를 바탕으로 자신의 근무를 반복하는 이들에게 특별한 구상을 착안하는 일이 낯설 것이다. 그러나 창의력을 발휘하기 힘든 직업일수록 반짝이는 생각을 떠올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보통의 방법으로 풀리지 않는 매듭의 실타래가 창의력이라는 도구로 쉬이 풀릴 수 있는 까닭이다.

역사와 일상 속에 창의가 깃들다

“황금은 땅속에서보다 인간의 생각 속에서 더 많이 채굴되었다.” 미국 대통령의 고문관으로 활동했던 작가 나폴레옹 힐이 남긴 말이다. 한 사람의 아이디어, 창의력이 세상을 얼마나 변화시켜왔는지 함축적으로 담은 명언이기도 하다. 만약 창의력이 없었다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가전제품과 교통수단은 존재할 수 있었을까. 인류가 성장하고 발전해온 이유가 곧 창의라고 봐도 틀리지 않다.

물론 창의는 인류의 거대한 흐름에서만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사소한 생활 안, 삶의 중대한 길목에서도 필요하다. 이를테면 가족들

과의 식사를 준비하는 것, 해결하지 못한 고민의 해답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말이다.

창의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다만 아무나 쉽게 창의력을 발휘하는 것은 아니다. 심리학자들은 창의력 발휘가 논리적 사고, 의지와 함께 뇌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활동 중 하나란 사실을 발견했다. 굳이 이 사실을 언급하지 않아도 우리는 안다. 창의성은 신비롭고도 역설적인 방식을 거쳐야 생기므로,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쉽게 발휘하기 힘들다는 것을 말이다.



CREATIVE

창의적인 사람들은
자신이 겪은 경험들을 새로운 것과
연결했을 뿐이다

생각을 탄생시키는 몽상과 관찰

혁신의 아이콘으로 끈질기게 소환됐던 스티브 잡스는 생전에 이런 말을 했다. “창의적인 사람들은 자신이 겪은 경험들을 새로운 것과 연결했을 뿐이다”라고. 그렇다면 우리는 새로운 것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연구자들은 대상과 ‘심리적인 거리’를 둘 것을 권장한다. 즉 현실적이지 않거나 익숙하지 않은 듯 외부자의 시선을 취하고 질문을 던지면 창의적인 생각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설명한다.

‘몽상’도 창의력을 키우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몽상에찬’의 저자 카우프만은 몽상이 현재를 벗어날 수 있게 해준다고 역설한다. 몽상이 평소에는 하지 못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떠올려준다는 것. 몽상이 갑작스러운 생각으로 연결되는 것은 산만함 속에서 정보를 기억해내는 우리의 능력과 관련이 있다. 실제로 신경과학자들은 몽상이 상상력, 창의성과 동일한 두뇌 활동의 과정을 거친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

세심한 관찰도 창의성의 단초다. 우리가 늘 만나는 사람들, 스쳐 지나가는 일상, 하루하루 흘러보내는 삶의 무수한 조각들을 들추어보고 다르게 바라보자. 작가 조안 디디언은 항상 수첩을 가지고 다니며 자신이 마주치는 사람과 사건을 관찰하고 기록했다. 그는 이러한 습관으로 자신의 복잡하고 모순적인 생각을 잘 이해하고, 새로운 영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창의력을 끌어내는 회의 방식

세계 최고의 애니메이션 회사인 픽사는 특별한 회의를 진행한다. 픽사의 핵심 멤버들과 감독 등 제작팀이 한 자리에 모여 제작 중인 영화의 이슈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이 회의의 이름은 ‘브레인트러스트’다. 회의에는 그 누구도 지휘권을 갖지 않는다. 직급에 따른 위계질서가 작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모두 동등한 제작자의 입장에서 의견을 교환하는데, 그래서 이들의 의견은 모두 솔직하다. 좋으면 좋다, 별로면 별로다라고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는 것. 그 대신 이들은 서로의 의견에 절대 날을 세우지 않는다. 성공하리라는 확신을 갖고,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간다고 믿는 사람들은 브레인트러스트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함께 도출해낸다.





배려와 인정이 넘치는 충주구치소

충주구치소는 충주시 천등산 자락에 위치한 교정기관이다. 차를 타고 도로를 지나다 보면 한눈에 속 들어오는 멋진 외관을 자랑하지만 높은 외벽이나 삼엄한 경비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덕분에 누구도 이곳이 구치소일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특징을 가졌다.

봄이면 꽃, 여름이면 울창한 녹음, 가을이면 알록달록한 단풍, 겨울이면 하얀 눈에 둘러싸이는 오각형 건물인 이곳은 규모가 작아 수용자(460여 명)나 직원 숫자(175여 명)가 타 소에 비해 적다. 그만큼 세심한 관리와 다양한 프로그램 시행이 가능하고 직원들 간의 정 역시 더없이 깊고 따뜻해 한번 일하게 되면 다시 떠나기 싫은 곳으로도 유명하다.

이처럼 특별한 근무 환경을 자랑하는 충주구치소를 위해 오늘 '교정은 행복을 신고' 팀이 준비한 선물은 늦여름 정취에 잘 어울리는 음악 '재즈'이다.

빼어난 음악성으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유사랑 재즈밴드가 직접 충주구치소까지 찾아와 라이브로 재즈 음악을 들려줄 준비가 한창이다. 이에 충주구치소도 동글게 모여 앉을 수 있는 테이블과 다과를 준비해 재즈와 잘 어울리는 분위기를 조성해줬다.

오늘 공연에는 특별한 손님들도 초대됐다. 수용자 교화를 위해 밤낮으로 애쓰는 교정위원들이 함께 음악을 즐기기로 한 것이다. 이는 윤창식 전 소장(공연이 열린 날은 윤창식 소장의 이임 이틀 전이었다)이 그간 충주구치소 수용자들을 위해 애써온 교정위원들을 한 가족으로 여겨 초대한 것. 오늘 공연에 그 어느 때보다 훈훈한 기운이 넘쳐난 이유다.

공연이 열릴 장소는 그리 크지 않았지만 아담하고 소박했다. 무엇보다 동글게 모여앉아 재즈를 즐길 수 있었기에 흥을 돋우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달콤함으로 사람의 기분을 뽕뽕 뜨게 할 테이블 위의 초콜릿과 생수 또한 이 작은 축제에 더없이 잘 어울렸다.

약속한 시각이 되자 윤창식 전 소장은 짧고 화끈하게 "긴말이 뭐가 필요하겠냐"며 "좋은 시간을 즐기자!"고 외쳐 큰 박수를 받았다.



재즈와 함께 즐긴 늦여름의 행복

충주구치소

충주구치소는 교정기관이 아닌, 기업 연수원이나 학교처럼 보이는 곳이다. 주변 산자락과 잘 어울리는 맵시 있는 건물 덕분이기도 하지만 주변을 감싸고 있는 공기 또한 가족애가 넘치는, 그 어느 곳보다 따뜻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교정은 행복을 신고' 팀이 아주 큰 행복 '음악'을 바리바리 싸 들고 충주구치소의 문을 두드렸다.



노래는 신나게! 퀴즈는 화끈하게!

무대에 오른 두 사람은 2014년 재즈피플에 선정된 가수 유사랑 씨와 재즈 피아니스트 강신혜 씨다. 두 사람만으로도 무대를 꽉 채운 존재감이 느껴지니 어느새 하나둘 찾아와 빼곡하게 자리를 채운 직원들의 표정에서는 기대감이 넘실 거린다.

“만나서 반갑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넌 유사랑 씨가 들려준 첫 곡은 냇킹콜의 ‘L-O-V-E’다. 이름은 몰라도 멜로디는 누구에게나 익숙한, 사랑스러운 이 곡에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신나게 박수로 박자를 맞춘다. 재즈에서만 즐길 수 있는 피아노 즉흥연주가 시작되자 직원들이 눈을 크게 뜬다. 일반 가요나 팝송에서는 쉽게 느낄 수 없는 자유롭고 파격적인 즉흥 음악에 모두가 신선한 충격을 받은 듯한 얼굴이다. 첫 번째 노래가 끝나자 모두가 열광적인 박수를 보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익숙한 곡 ‘L-O-V-E’로 먼저 인사드렸습니다. 사실 이곳에 오기 전에 입구에서부터 죄지은 게 없는지 제 자신을 돌아봤어요(모두 웃음). 조금 딱딱한 분위기가 아닐까 해서 걱정했는데 이렇게 모두 웃어주시니 힘이 납니다. 마음을 열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주세요.” 유사랑 씨의 멘트에 모두가 다시금 뜨겁게 박수를 쳤다.



두 번째 곡은 신나는 라틴리듬의 ‘스윙’. 세 번째 곡은 우리 가요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가 울려 퍼졌다. 리듬을 타며 고개를 까닥이던 직원들에게 이어진 순서는 QUIZ 시간! 준비된 상품은 문화상품권이다. 모두가 지금까지의 여유는 잠시 잊고 눈동자를 빛낸다. 첫 번째 퀴즈는 난센스 문제다. 사과 그림과 함께 나온 문제는 “웃는 사과는?”이다. “푹사과!” 누군가 바로 손을 들고 맞췄지만 안타깝게도 연습게임. 모두가 웃음이 터진다.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은 것은?” 이 질문에 잠시 정적이 흘렀지만 이내 누군가 소리친다. “파인애플!” 직원들이 일제히 환호하면서 박수를 쳤고 퀴즈를 낸 유사랑 씨가 “어떻게 아셨냐”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두 번째 문제는 초성퀴즈다. ‘ㄷㅅ’이라는 두 글자가 주어지고 “이 초성이 들어간 두 명의 교도관 이름을 맞추라”라는 문제가 제시되자 모두가 눈을 데굴데굴 굴리며 옆 사람과 열심히 머리를 맞대고 의논을 한다. 정답은 ‘윤창식’과 ‘최창수’. 직원들 모두가 뛰어난 순발력을 보여주면서 터진 웃음을 감추지 못하니 짧은 유희시간이 유쾌하기만 하다.



재즈로 하나 된 우리들

대부분의 직원들에게 재즈는 사실 낯선 음악이다. 가요나 트로트, 소프트팝이 대체를 이루는 가운데 재즈를, 그것도 라이브로 즐길 기회는 지방 도시에서 쉽게 만나기 힘들다. 자리를 함께한 최혜정 교위 역시 재즈를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들어본 건 처음이라며 신기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사실 재즈를 즐기고 어려운 음악, 뭔가 분위기 있는 곳에서 들어야 하는 음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많은 분이 웃고 박수를 치며 노래를 들어주시니 무어라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주시는 여러분을 위해 이번에는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유사랑 씨가 다시 마이크를 잡자 CF 음악으로도 친숙한 선 굵은 이 노래에 직원 모두가 흠뻑 빠져든다. 공식적인 마지막 곡 ‘Route 66’에서는 직원들 모두가 재즈 곡을 함께 부르는 기쁨을 토했다. 보컬을 악기처럼 사용하는 ‘스캇’을 모두가 따라 불러보기로 한 것. 가수가 선창을 하면 직원들이 그대로 따라 부르는 것이다. 유사랑 씨가 무대 아래로 내려가 직원들에게 마이크를 갖다 대자 모두가 당황하면서도 곧잘 따라 불러 또 한 번 환호가 터져 나왔다. 이어 마지막 퀴즈 시간이 진행됐다. 신세대 용어를 맞추는

문제가 나와 처음엔 모든 직원들이 당황했지만, 우려와 달리 모든 문제를 맞혔다. 충주구치소 직원들이 모두가 젊디젊은, 신세대임이 증명된 순간이다. 모두가 ‘앵글’을 외치는 가운데 이어 흐르는 마지막 곡은 ‘사랑은 창밖의 빗물 같아요’. 모두가 흥얼흥얼 따라 부르며 오늘의 이 색다른 음악회를 마무리했다.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써주시는 여러분이 있기에 저희가 안심하며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깊이 허리 숙여 인사하는 유사랑 씨에게 다시금 열렬한 박수를 보낸 충주구치소 직원들. 오늘 하루는 낯설었지만 바로 그 낯설이 주는 신선함에 모두가 새로운 세상을 만난 즐거움과 행복을 만끽한 게 아니었을까? 공연 후기를 나누는 직원들의 표정에는 미소가 한가득이었다.

그렇게 ‘교정은 행복을 신고’팀은 오늘도 행복 한 꾸러미를 배달하는 데 완벽히 성공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시면 현장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충주구치소

재즈와 함께한 감동의 무대,
직원들이 공연을 관람한 소감을 전했다.



교감 김재욱

그동안 트로트나 가요만 듣다가 재즈라는 음악을 처음 들어봤습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지루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막상 들어보니 귀가 호강한 느낌이었어요. 우리 직원들이 모처럼 이런 기회를 통해서 힐링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교위 노영균

재즈라는 게 이런 음악이구나! 탁 무릎을 쳤던 시간이었습니다. 즉흥적으로 부르고 연주하는 새로운 느낌이 좋았어요. 특히 스캇을 따라 부를 때가 즐거웠는데 우리 직원들의 숨은 재주를 발견한 듯해 깜짝 놀랐습니다. 충주구치소는 평소 직원들끼리의 이해와 협조가 높은 곳으로 유명한데 오늘 이 시간은 모두가 하나 되어 더욱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교위 최혜정

오늘 정말 행복했습니다. 무엇보다 직장 동료들과 함께 음악을 듣는 시간을 공유했다는 점이 의미가 있었어요. 함께할 수 있는 추억을 공유함으로써 그 추억이 우리의 또 다른 원동력이 된 것 같습니다. 문화의 불모지인 이 작은 도시까지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사 김규영

처음 교정본부에 찾아와 공연한다고 했을 때 사실 조금 미지근한 반응이었어요. 잘 모르는 음악이었기 때문이었죠. 막상 접해본 재즈는 평소 먹지 못했던 음식을 먹은 듯 색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늘 교육과 강의만 하다가 힐링을 한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직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교도 이규상

유난히 무더웠던 여름에 많이 지쳐있었는데 큰 힘을 얻었습니다. 재즈는 낯선 음악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새로운 음악을 들으면서 활력과 위안을 얻었어요. 확실히 가요와는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특히 오늘 동료들과 함께 음악을 듣고 즐기니 좀 더 가까워지고 친근해진 느낌이 듭니다.



식품위생서기 김민주

문화생활은 사실 영화를 보는 게 전부였어요. 이렇게 눈앞에서 직접 재즈를 라이브 공연으로 보다니 너무 즐거웠습니다. 안 왔으면 정말 후회할 뻔했어요. 교대근무나 일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직원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늘 먼저 인사해주고 음식이 맛있다고 말해주는 우리 직원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좋은 추억은 떠올릴 때마다 행복을 준다. 그리고 때로는 삶의 원동력으로 작용해 우리를 힘차게 나아가게 한다. 오늘의 주인공 목포교도소 김성규 교위가 이벤트를 신청한 이유다. 아이들이 지금 자신의 나이가 되었을 때, '우리 아빠는 이런 사람이었구나'라고 떠올리고 되짚어볼 수 있도록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주고 싶었다고. 이번 체험을 통해 그 추억의 나날을 담은 김성규 교위 가족을 만나보자.

요트 체험 가족, 사랑을 싣고 함께 항해하다

목포교도소 교위 김성규 가족



특별한 추억으로 기억될 오늘

서울에서 기차로 3시간가량 지나 도착한 곳은 전라남도 목포시에 위치한 소규모 요트 선착장이다. 활기찬 목소리로 담소를 나누던 김성규 교위 가족은 '아빠 어디가' 팀을 보자 환한 미소로 반겼다. 장소가 말해주듯, 오늘 진행하게 될 이벤트는 바로 요트 체험이다. 초등학교 5학년인 첫째 효은이는 요트 체험에 앞서 승선보고서를 꼼꼼히 작성했다. 사진 촬영이 시작될 때는 쑥스러운지 동생 라임이와 긴장한 표정을 짓기도 했지만, 김성규 교위 부부가 장난도 치고 농담도 던지니 금세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다. 탑승할 시간이 되자, 김성규 교위와 아내 신수진 씨는 아이들의 구명조끼를 채워주며 두 손을 꼭 잡고 요트에 올랐다. 처음 타보는 요트에 짐짓 머뭇거리던 효은이와 라임이는 이내 요트가 출발하자, 시원한 바람을 만끽하며 즐거운 표정을 지었다. 그 모습을 본 김성규 교위 부부도 흐뭇함을 감추지 못했다.



"우리 가족에 대한 이야기와 사진이 '교정지'라는 책에 실리게 되잖아요. 그 추억을 남기는 것이 평소에는 경험하기 쉽지 않은 일하기에 '아빠 어디가' 이벤트를 진행하고 싶었습니다."

평소 두 딸과 함께 활동성 있는 체험을 즐긴다는 김성규 교위는 쉽게 접하지 못했던 요트체험을 이벤트로 선택하고, '아빠 어디가'에 대한 소식을 제일 먼저 아내에게 전했다. 아내 신수진 씨는 사진 촬영을 하는 점이 다소 부담스럽긴 했지만,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에 흔쾌히 체험을 수락했다. 두 딸은 체험 바로 전날 소식을 듣게 됐는데, 아버지 김성규 교위가 아이들에게 '서프라이즈' 선물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운전대를 잡은 가족, 행복을 담은 항해

목포 바다를 가르며 가는 요트에 어느덧 적응했는지 김성규 교위는 요트 항해사의 지도로 요트의 운전대를 잡았다. 이에 가족들이 한 목소리로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자 김성규 교위가 빠르게 적응하며 요트 운전을 했다. 특히, 둘째 라임이가 애교를 섞으며 '하이팅!'이라고 외치자 운전대를 잡은 김성규 교위가 더 큰 힘을 얻었다.

라임이는 보트를 운전하는 아빠가 멋있었는지 운전하는 아빠 옆으로 가 함께 운전대를 잡기도 했다. 첫째 효은이도 이에 질세라 뱃머리로 다가가 마치 선장처럼 보트가 나아가는 방향을 지켜봤다.

잔잔한 바다에 작은 파도가 일렁이자 배도 함께 흔들거렸다. 그 일렁거리는 느낌이 재밌었는지 가족은 다시 까르르 웃음을 터트렸다. 김성규 교위가 운전하는 요트는 목포대교를 가로질러 항해를 이어나갔다. 바다에서 올려다보는 목포대교는 색다른 풍경. 가족들은 작게 감탄사를 내뱉기도 했다.

김성규 교위는 보트 항해사에게 운전대를 맡긴 후 효은이의 곁으로 다가갔다. 효은이는 김성규 교위를 향해 “처음에 긴장했는데 긴장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고 미소를 지어 보여 아빠를 다시 한번 흐뭇하게 만들었다.

김성규 교위는 집에서 자상한 아빠로 통한다. 아내 신수진 씨는 “항상 남편이 아이들과 잘 놀아 준다”며 “저와 아이들에게 늘 먼저 손을 내미는 좋은 남편, 좋은 아빠”라고 전했다.



효은이는 김성규 교위를 향해 '자랑스러운 아빠'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효은이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있었던 일화 하나를 꺼내놓았다. 부모님들이 학교로 와 직업 교육을 실시하는 날이 있었는데, 이날 김성규 교위가 방문하여 효은이와 친구들에게 교정공무원에 대해서 설명해준 것이다. 교정공무원이라는 직업의 가치를 전하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격려해준 아빠 덕분에 효은이는 아빠를 더욱 자랑스러워하게 됐다고. 김성규 교위는 효은이가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에 더 보람을 느끼고, 그날 이후 목포교도소를 대표해 관내 중·고등학교에서 직업체험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유도를 통해 전하는 인생의 철학

친구 같은 부녀 김성규 교위와 효은이는 함께 유도장을 다니고 있다. 운동을 좋아하는 김성규 교위가 유도를 통해 느꼈던 인생의 철학을 효은이에게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유도를 통해 예의범절을 가르치고, 실패를 극복하는 법, 다시 일어서는 법에 대해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다.

김성규 교위는 “유도는 상대방을 둘러업고 넘겨 뜨려야 이기는 운동”이라며 “보통 유도는 낙법부터 배우게 되는데, 그 과정을 통해 공격을 당하는 상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고 전했다.

“실패했을 때 극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실패를 해보지 않으면 극복하는 힘이 생기지 않아요. 효은이가 유도를 통해 넘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스스로 일어서는 방법에 대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딸에 대한 김성규 교위의 애뜻한 마음이 전해지는 말이었다.

요트 체험이 종료되고 배에서 내린 김성규 교위 가족은 오늘 이벤트에 대한 만족감을 가득 드러냈다. 선선한 날씨, 아름다운 풍경까지 완벽했던 오늘은 가족에게 오랜 세월이 지나도 잊을 수 없는 추억 한 페이지로 완벽히 자리한 듯 보였다.



뉴문마리나

뉴문마리나는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요트체험을 할 수 있다. 셀카봉과 자전거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저녁에는 풍등도 대여할 수 있다. 음료 및 다과도 무료로 즐길 수 있다. 단, 홈페이지를 통해 미리 예약한 후 방문하는 것이 좋다.

전화번호 061-245-9494

위치 전라남도 목포시 해안로 6

영업시간 매일 10:00~21:00

홈페이지 www.newmoonmarina.com

'아빠! 어디가?'는 교정인게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전하는 코너입니다. 월간 <교정> 애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참여신청 메일 주실 곳

- correct2015@naver.com

- yjw1219@korea.kr





세상을 지키는 따뜻한 사람들, 교정

〈서울동부구치소〉 보안과
교사 장세호, 이선형, 김범근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날이었다. 그러나 동부구치소 장세호 교사, 이선형 교사, 김범근 교사는 별다른 걱정을 내비치지 않고 약속한 이벤트 장소에 도착했다. 함께하는 것이 그저 좋은, 끈끈한 동료들이기 때문이라. 곳은 낯선 속에 서로의 존재를 더욱 선명하고 질게 새긴 그 멋진 날을 소개한다.

어느 날이든
동료애는 '마인드' 같고

짜릿한 하루를 기대하다

구름을 잔뜩 머금은 날에도 찌는 듯한 무더위가 계속된 8월의 어느 날, 동부구치소 보안과 장세호 교사, 이선형 교사, 김범근 교사가 연극 관람을 위해 대학로까지 한걸음에 달려왔다.

얼마 전 편집실로 도착한 작은 편지 한 통이 시작이었다. 편지에는 “유독 더웠던 올여름, 땀 흘리며 열심히 일한 동료들에게 나무그늘 같은 하루를 선물했으면 좋겠다”는 사연이 적혀 있었다.

“작년 여름 성동구치소가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전하느라 분주하고 많이 바빴습니다. 저희 셋 모두 같은 부에 근무하긴 하지만, 새로운 업무 파악과 공부 등의 개인적인 일로 퇴근 후에 함께 모이기 힘들었는데요. 미래를 위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형과 동생을 위해 하루쯤은 휴식과 추억을 전해주고 싶었습니다.”

세 사람이 인연을 맺은 것은 1년 남짓. 서울구치소와 원주교도소에서 근무해 온 장세호 교사, 김범근 교사가 동부구치소에서 이선형 교사와 함께 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질 수 있었다고. 짧은 기간이지만 동고동락한 소중한 동료들에게 장세호 교사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다.

이선형 교사는 사실 야간근무를 마친 뒤에 어딘가를 간다는 것이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장세호 교사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해 이벤트의 동행을 함께하게 됐다.

“연극을 볼 수 있게 돼서 색다른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체험하게 될 문화생활이 근무하는 데 커다란 힘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어느 멋진 날은 교정인 여러분께 문화권리의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동료와 함께 보고 싶은 영화나 연극이 있다면 지금 아래 메일로 신청해주세요.
신청 : correct2015@naver.com / yjm1219@korea.kr





김범근 교사 역시 틀에 박힌 일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오늘 하루가 무척 기대된다고 털어놓았다.

“아근부서 특성상 생활이 단조로워질 수밖에 없는데 오늘 커다란 활력을 얻을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직장 동료라고 하기에는 유달리 친근해 보이는 장세호 교사와 김범근 교사. 5년 동안 함께 근무하면서 공통점이 많아 금세 친해질 수 있었다고. “나이와 성격, 심지어 취미도 비슷해 금세 친해졌어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순환근무를 하게 되는데 벌써 세 번째나 같은 곳에서 함께 하다 보니 가족 같은 생각도 들어요.(웃음)”

문화 공연의 재미를 느끼다

연극을 처음 본다는 김범근 교사를 배려해 며칠 동안 고민 끝에 선택한 연극은 현재 대학로 예매 순위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쉬어메디시스>. ‘관객의 추리에 따라 결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인기몰이 중인 연극이다.

“여가생활이라고 해봐야 영화를 보거나 친구들을 만나 술 한 잔 기울이는 것이 전부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재미있는 연극을 봤으면 좋겠다고 이선형 교사에게 부탁했어요.”

김범근 교사가 연극에 대한 기대감을 감추지 못하며 말을 전했다. 연극의 인기는 예상대로였다.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던 것. 공연을 관람하고 나온 이들의 표정도 더없이 밝았다. 김범근 교사는 “확실히 영화와는 색다른 맛이 있다”며 “왜 연극을 보는지 알게 됐다”고 만족감을 보였다.

“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새삼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



“이 행복이 추억으로
다듬어지기를”



교사 장세호

동료들과 함께한 오늘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재밌는 연극도 보고, 맛있는 저녁도 먹게 돼서 행복하고 기쁩니다. 오늘 하루를 마음에 잘 담아두고, 늘 추억으로 꺼내 보려고 합니다.

더욱 돈독해진 동료애

한 편의 연극 관람으로 감성을 가득 채운 이들은 추적추적 빗길을 걸으면서도 연극 얘기로 이야기꽃을 피웠다. 이들의 발걸음은 미리 예약해 둔 음식점에 이르러 서야 멈췄다. 미리 생각해 둔 음식을 주문한 세 사람은 다시 대화를 이어갔다. 곧 주문한 음식이 나오고, 행복하게 저녁을 먹는 동료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번졌다. 음식에 정이 더해지니 맛은 물론 기분까지 좋다.

이선형 교사는 “이 순간을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다”며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김범근 교사 역시 “특별한 이벤트 덕분에 웃음이 끊어질 않는다”며 기분 좋게 소감을 밝혔다. 음식을 즐기는 세 사람의 모습은 더없이 정겹기만 하다.

“업무가 아닌 다른 일에 몰두하며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색다르고 좋았어요. 특히 이렇게 직장 동료들과 함께하니 잊지 못할 추억이 하나 더 생겼네요. 멋진 추억을 선물해준 교정본부에 감사드려요.”

장세호 교사의 얘기에 김범근 교사와 이선형 교사도 한마디 거든다.

“동료들과 문화생활까지 생각해주시는 곳이 얼마나 될까요.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새삼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날이 좋지 않은 하루에도, 햇살처럼 빛나는 시간으로 오늘을 채운 세 사람. 오래도록 함께할 이들의 동료애가 앞으로도 더욱 반짝이기를 기대해본다.





삶의 여정을 함께 오르듯이 : 가족과 함께 가을 등산하기

더위가 물러나자 청명한 하늘과 선선한 바람이 가을의 초입을 알린다. 하지만 하늘과 바람만으로 온전한 가을을 떠올리기엔 어딘지 허전한 구석이 있다. 울긋불긋 오색 빛으로 물든 가을 산을 오르는 등산객들의 모습을 그려보니, 비로소 온전히 완성되는 가을의 풍경. 지금 계절의 정취가 담긴 가을 산으로 가족과 함께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가을 등산으로 활기 충전

적당히 시원한 바람과 습하지 않은 온도, 가을은 등산하기에 최적의 계절이다. 특히 가을 산은 단풍을 물들인 나무들로 빼어난 절경을 이루기에 처음 산행을 시작하는 가족들에겐 가을만큼 등산하기 좋은 계절이 없다.

등산은 가족 간의 결속력을 더욱 끈끈하게 만든다. '정상'이라는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가족들은 인내심과 끈기, 성취감을 공유하기 때문이다.

또한 아이들의 정서 발달에도 큰 도움이 된다. 어린아이들은 자연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스트레스가 많은 청소년기 아이들은 학업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새롭게 마음을 다잡을 수 있다. 성인 자녀가 있다면, 함께 인생을 살아가는 동반자로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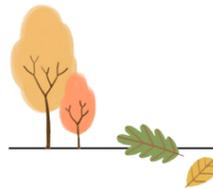
가족 산행의 매력 더하기

가을 등산을 200% 즐기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우선 가족의 여건을 고려하여 등산할 수 있는 산을 함께 알아보는 것이다. 인터넷을 통해 등산 경로와 코스를 결정하고, 절, 폭포, 나무, 경치 등 산에 얽힌 이야기를 가족과 함께 나눠보자. 또한 가족 구성원들끼리 미리 등산 시 필요한 역할을 정해보도록 한다. 가령 산행 코스 안내하기, 간식이나 물 마시기, 식사 준비하기, 사진 찍기, 가고 있는 방향이나 위치 알아보기 등이다.

등산 전 준비 운동은 필수다. 등산 전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통해 몸을 풀어주면 심장에 무리를 줄이고 근육통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발목 돌리기, 발끝 앞으로 뻗어주기 등 발과 관련한 운동을 집중적으로 하자.

등산 중에는 가을 산을 보며 각자 감상평을 나누는 것도 좋다. 가을 산이 사랑받는 이유 중 하나는 수려한 풍경. 등산과 풍경이라는 대화의 매개체가 생겼으니 그동안 못다 한 이야기가 있으면 함께 나누는 것도 좋은 등산법이다.

산을 오를 때는 성큼성큼 걷기보다는 느린 속도로 여유를 가지고 걷는 것이 좋다. 여유를 가지며 계곡 소리와 바람 소리 등 자연의 소리를 들어 보자. 뇌의 알파파가 증가돼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데 도움을 받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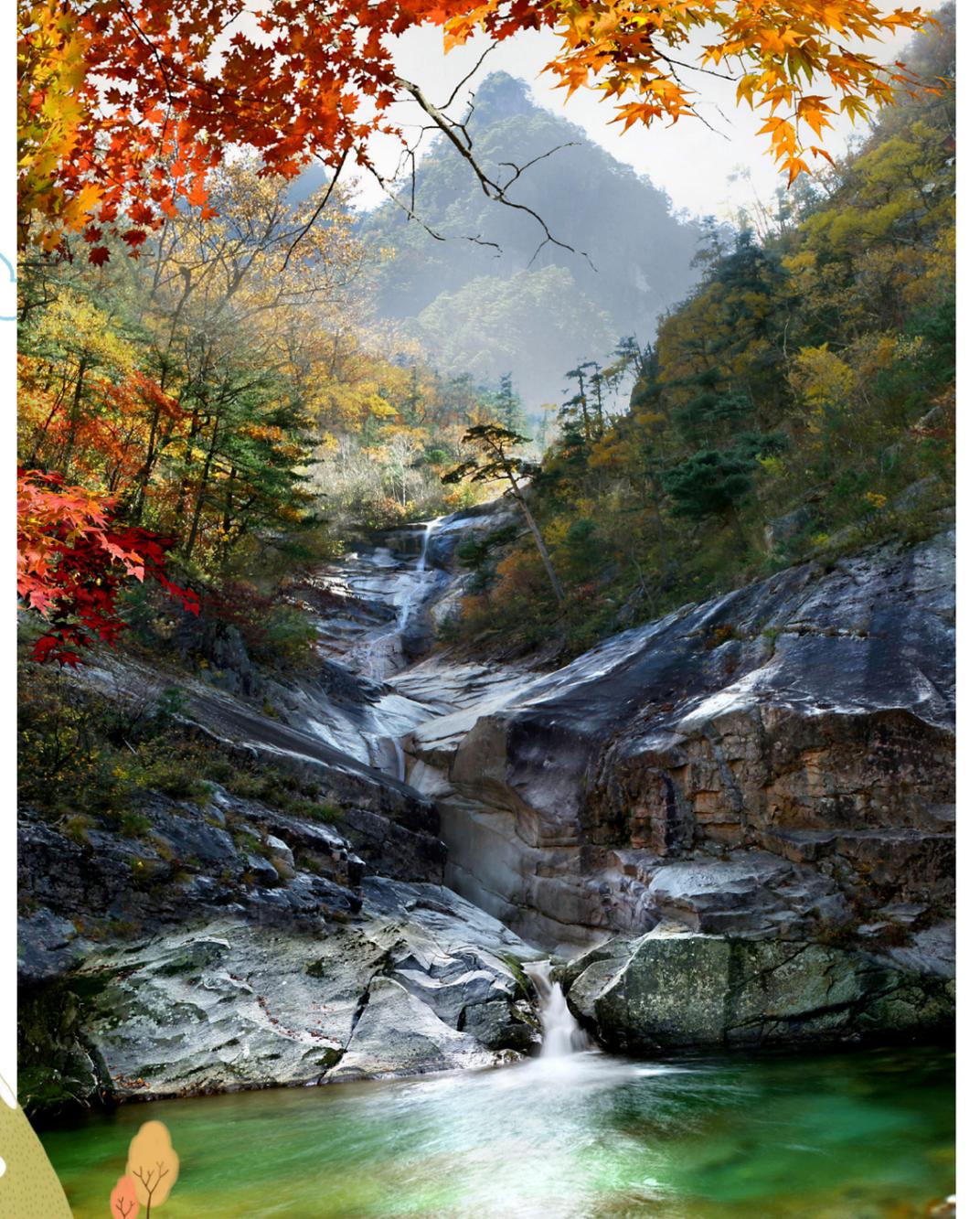
TIP

산행 즐기기

등산을 할 때는 쉽게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중간중간 먹을 수 있는 비상식량을 챙기도록 하자. 빵이나 과자보다는 에너지를 빨리 보충할 수 있는 초콜릿이 좋다. 이러한 간식은 아이가 등산을 하는 데 동력이 될 수도 있다. 아이가 한 번에 먹지 않도록 목표 지점에 오를 때마다 간식을 먹기로 약속한다면, 아이는 등산을 좀 더 수월하게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추천 등산 코스



지리산 노고단코스 4.7km / 1시간 소요 성삼재주차장 → 무녕기 → 대피소 갈림길 → 노고단 대피소 → 노고단고개 지리산의 3대 주봉 중 하나인 노고단을 손쉽게 오를 수 있는 코스다. 고산지대의 경관과 자연생태계를 모두 체험할 수 있다. 흙, 모래, 자갈 등이 깔린 넓고 평탄하게 이루어진 탐방로로 누구나 편안하게 산행에 오를 수 있다.

고려산 등산코스 7.3km / 3시간 소요 미꾸지고개 → 고려산 정상 → 고비고개 곳곳에 적석사, 백련사, 청련사 등 사찰과 고인돌군락지, 고구려 토성, 오련지 등 문화재가 많아 역사탐방하기에 좋다. 20분 정도의 급경사만 오르면 부드러운 흙길이라서 가족끼리 오르기에 부담이 없다.

주왕산 주왕계곡코스 8.8km / 4시간 소요 상의 주차장 → 용추폭포 → 내원동 온 가족이 함께 시원한 계곡을 따라 즐길 수 있는 산행 코스. 완만한 경사의 산책코스. 용추폭포에서 내원동 구간은 돌길이 많고 경사지지 않아 굳이 등산화를 신지 않더라도 탐방이 가능할 정도다. 암석 등에서 자생하는 식물을 관찰할 수 있는 것도 특징이다.

면역력, 내 몸에 깃든 슈퍼의사 : 환절기 면역력 키우기



병원균과 싸울 수 있는 힘

면역력 권위자로 알려진 일본 니가타대 대학원 의치학종합연구과 아보 도루 교수는 자신의 책에서 '선천적으로 허약하거나 약이 잘 듣지 않는 체질도 있는데, 중요한 원인은 면역력'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면역력은 많은 병을 이기고 낮게 해주는 명의 중 명의, 즉 슈퍼의사'라고 덧붙였다.

면역력은 외부에서 우리 몸에 침입한 세균이나 바이러스 등을 싸워 물리치게 하는 인체방어 시스템이다. 면역력이 강해지면 병원균에 노출돼도 이겨낼 수 있지만, 면역력이 떨어지면 각종 질환에 걸리게 된다. 감기는 물론이고, 폐렴, 편도선염, 기관지염 등 온갖 염증에 시달린다. 염증은 심해지면 종양으로 커지기도 한다. 또한 면역력이 떨어진 사람은 질환의 회복 속도도 느리다. 가벼운 마음으로 취하는 휴식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체온이 면역력을 결정한다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최근 50년 동안 인간의 평균 체온이 0.3~1도 이상 낮아지면서 잔병치레를 하는 사람의 수가 급증했다고 한다. 체온이 낮아지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고 각종 병에 쉽게 노출되고 만 것이다. 따라서 따뜻한 음식이나 물을 자주 섭취하여 몸 온도를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뜻한 음식은 위장에서 더 쉽게 소화가 돼 영양소를 원활하게 순환시킨다.

잘못된 자세를 교정하는 것도 몸이 차가워지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이다. 어깨를 펴고 가슴을 살짝 앞으로 내밀면 자연스럽게 척추가 펴지게 되는데, 이때 쉬고 있던 근육은 운동을 시작하여 열을 발생시킨다. 배와 등 근육은 인체에서 가장 큰 근육 중 하나로 체온 유지에 중요하다.



'폭염'과 '혹한' 사이에 머무르는 가을은 우리 몸이 생체 리듬을 다시 설정하는 계절이다. 갑자기 변하는 외부 환경에 적응하려고 애쓰는 시기인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면역력을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기, 다양한 측면에서 면역력을 증진할 방법들이 있다.



나쁜 세포를 제거하는 숲의 비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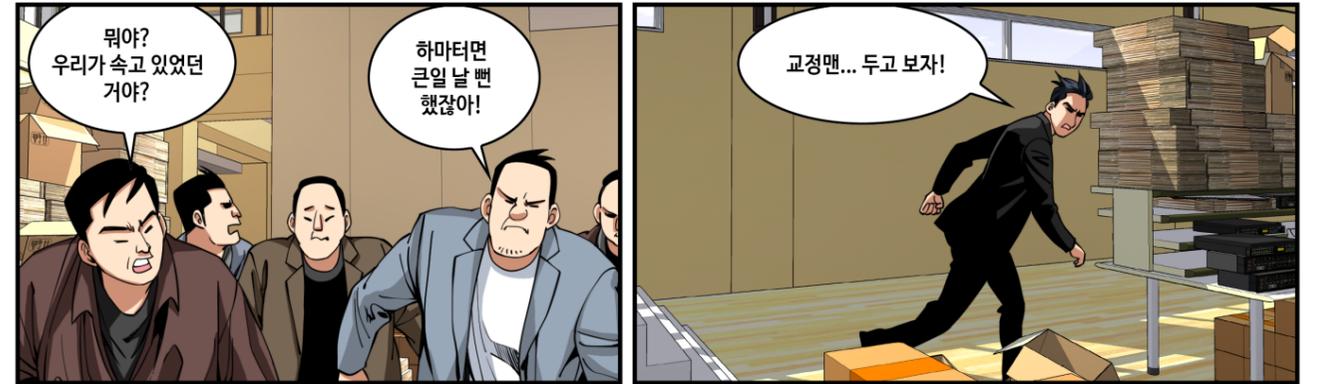
날씨 좋은 날 산이나 숲으로 떠나보는 것은 어떨까. 피톤치드가 면역력을 높여줄 수 있다. 나무가 울창한 숲에 가면 특유의 상쾌한 향이 나는데, 바로 피톤치드가 만들어 내는 향기이다. 피톤치드는 나무와 식물이 해충이나 곰팡이에 저항하려고 스스로 만들어 발산하는 휘발성 물질. 피톤치드의 항균 효과와 면역력 증강 효과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 일본 니혼의과대학과 삼림종합연구소 공동연구팀이 지친 도시 직장인에게 일정 기간 산림욕을 시킨 뒤 체내 'NK(Natural Killer) 세포'의 활성도를 조사한 결과, 산림욕 전 18%였던 NK세포 활성도가 첫째 날에는 21%, 둘째 날에는 26%로 높아졌다고 한다. NK세포는 면역력 유지에 핵심적인 세포로, 암세포나 세균에 감염된 세포를 없애준다.



면역 기능을 높여주는 음식들

음식을 잘 섭취하는 것은 면역력을 높이는 데 필수적이다. 면역력 강화에 도움 되는 원료는 바로 인삼과 홍삼이다. 인삼과 홍삼에는 진세노사이드라는 사포닌이 풍부하게 들어 있는데, 사포닌은 인체 구성인자 기능 활성화, 면역강화, 피로해소 등의 기능을 한다. 덴마크 국립병원팀은 자체 연구를 통해 "인삼은 사람의 면역기능을 개선시켜 염증을 빨리 퇴치시키며, 특히 감기에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인삼과 홍삼 외에도 클로렐라, 알로에겔, 표고버섯균사체 등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원료들이다.

악을 응징하며
세상을 구하기 위해 나타난
교정맨





교정맨은 어떻게 출소자들을 재정비할 것인가? TO be continued...

‘정의’가 돈에 갇히지 않도록 보석금의 불평등을 끝내면 어떻게 될까요?



보석금을 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 액수는 500달러 정도. 누군가는 쉽게 그 돈을 내고 풀려나지만, 누군가는 수중에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직업, 집 그리고 목숨까지 타격을 입는다. 국선 변호사로 활동 중인 로빈 스타인버그는 문제를 극복할 대담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바로 전례가 없던, 전국적인 ‘보석금 기금’ 프로젝트다. 그녀의 야심 찬 계획은 이제 막 닳을 올리는 중이다.

돈이 없어서 갇히는 사람들

미국은 여느 국가보다 많은 사람을 수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알고 있나요? 매일 밤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은 5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미국의 감옥 안에서 잠든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들은 자유를 위한 금액을 지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갇힌 사람들입니다. 그 금액을 우리는 ‘보석금’이라고 부르죠. 며칠 동안 감옥에 수용되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단지 며칠 동안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 집을 잃을 수 있으며, 이민 자격을 박탈당하는 그 모든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저는 감옥에 있는 고객을 처음 방문했을 때를 잊을 수 없습니다. 무거운 금속으로 된 문이 광 하고 닫혔고, 열쇠로 문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투옥이 어떤 느낌인지 이해했죠. 저는 국선변호사로서 다짐했습니다. 그 느낌을 잊지 않기로요. 그것이 제가 고객의 자유를 위해 싸우게 한 동력이 되었습니다.

모두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

보석금을 지급할 돈이 없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가두는 건 우리 사회에서 가장 불공평하고 부도덕한 일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너무나 비생산적인 일입니다. 미국의 납세자들은 아무런 선고를 받지 않을 사람들을 가두기 위해 매년 140억 달러의 세금을 냅니다. 하루에 4,000만 달러라는 얘기죠. 저는 반평생 넘게 국선변호인으로 일했고 보석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서 수천 명의 고객이 갇히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정의의 문제가 돈의 문제로 포괄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국의 사법 체계에 의문을 가지게 된 것은 당연했죠.

프로젝트의 원리, 보석금을 순환하라

같은 국선변호사였던 제 남편 데이비드와 식탁에 앉아 오랫동안 머리를 맞대며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데이비드가 절 보고 말했습니다. “보석금 기금을 시작해보는 게 어때? 그래서 우리 고객들의 보석금을 내주는 거야.” ‘보석금 기금’ 프로젝트라는 아이디어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많은 사람에게 가능한 한 빨리 보석금을 내줄 겁니다. 향후 5년 간 국선변호사와 지역사회조직과 협력하면서 말이죠. 16만 명을 보석 석방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소송에서 이기면 보석금이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이용할 계획입니다. 돌아온 보석금을 다시 기금해 보석금을 순환시킬 거라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형법 시스템은 해체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그러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잘 압니다. 다양한 전략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프로젝트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Robin Steinberg TED 강연 영상



TED ‘What if we ended the injustice of bail?’편 시청방법

www.ted.com에 접속한다 → 오른쪽 위의 돋보기 아이콘을 클릭한다 → 검색창에 ‘Robin Steinberg’를 입력한다 → 동영상 중 Robin Steinberg: ‘What if we ended the injustice of bail?’을 재생한다.

* 동영상 화면 오른쪽 아래의 말풍선 아이콘을 클릭하면 언어를 선택할 수 있으며, 한국어로도 지원된다.

아침이어든

아침이어든
 새벽이 사그러질 듯 녹아내리는
 아침이어든
 낙엽 사이로 별 맞으며
 떠나리이다
 당신 곁으로

아침이어든
 새벽이 미어져 끝내 풀아 터지는
 아침이어든
 보따리 하나 달랑 메고
 눈감고 살아도 되리이다
 당신과 함께

아침이어든
 새벽을 튕겨버리고
 태양이 드리운 것을 헤치고
 밤은 아침이어든
 미련 두지 아니하옵고 살아가리이다
 당신과 함께

영혼의 공백을 넘어
 동산 위 등대에 불빛이 드리우면
 고즈넉한 마음이 여명처럼 새겨져 오면
 나 아침을 등지고 가리이다
 한 송이 꽃이 되기 위하여

아침이어든
 진정 아침의 견고를 건너
 환한 빛의 함성이 들리우면
 나 진정 기지개 펴고
 한세상만 살이 가리이다
 당신과 함께



바위취꽃

그 새하얗던 산딸기꽃 점점, 빨갭게 익어가는 날이었죠.

물안개 막 걸힌 영산강 따라 오솔길
 축축히 젖은 짙레꽃 가시 그늘 아래
 우연히 눈 속에 들어온 요정들

가느다란 초록 가지 끝에 매달려 아슬아슬
 꽃날개 활짝 열어젖혀 나뭇나뭇 열심히들 날고 있건만
 별도 나비도
 아무도 찾아주질 않네요.

너무 작은 탓일까
 '大' 자 모양 무색하게도
 너 눈 맞추는 사이

살그머니 다가선 아내가 뺏어낸 나즈막한 탄성으로 한 잠,

산그늘 사라져 간 자리로 떠나는 걸음 걸음
 술 담그러 딸기 따러 다시 올 때를 기억합니다.





교정 가족의 정신을 치유하다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프로그램 내용과 계획

교정공무원들은 스트레스를 받기 쉬운 근무 환경으로 인해 정신 건강을 관리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해 처음으로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시행, 2년째 진행하고 있다.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있는지, 또한 법무부는 교정공무원의 정신 건강을 위해 어떠한 계획을 더 세우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세상을 지키는 따뜻한 사람들, 교정



늘 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는 교정공무원

교정공무원들은 24시간 수용자를 가까이서 계호하고 있다. 항상 긴장된 상태로 업무에 임해야 하는 직업적 특성으로 늘 수면장애를 겪고, 각종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교정공무원들의 노고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교정시설 내에서 수용자의 자살과 병사, 심각한 자해사건을 지켜봐야 하는 것은 물론, 수용자로부터 폭언을 듣거나 폭행을 당함으로써 정신적 피해도 입는다.

2016년에 실시한 '교정공무원의 심리검사를 통한 정신건강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인원의 24.3%가 우울, 불안이나 외상 증후군 등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정공무원들을 위한 전문적인 심리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외부 전문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심리상담 프로그램은 크게 외부 전문상담, 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 찾아가는 심신케어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8년에는 외부 전문상담 지원을 확대하고 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보다 많은 교정공무원들에게 전문적인 심리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중이다.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실적 및 계획

구분		2017년	2018년(예정)
심리상담 프로그램	외부 전문상담	1,139회(217명)	1964회(288명)
	심신케어	16회(939명)	18회(1,000명)
스트레스 집중 치유 프로그램		250명(7회)	260명(7회)

교정 가족의 정신 건강을 위해 노력하다

특히, 교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심신케어 프로그램'은 2년 연속으로 서울구치소 등 17개 교정기관에서 각각 실시되어, 직원들의 높은 관심을 이끌어냈다. 심신케어 프로그램은 외부 심리상담사와 피지컬케어 전문가가 교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개인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피지컬케어 등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이에 법무부는 교정본부에서 근무하는 교정공무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심신케어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행사를 8월 20일 정부과천청사 3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행사에는 법무부 박상기 장관이 행사장을 방문하여 관계자를 격려하고 직접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한편, 법무부는 2016년 9월 심리치료과를 신설, 중독성 범죄자와 재범 고위험군에 대한 심리치료를 강화하며, 교정공무원의 정신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법무부는 앞으로도 다양한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프로그램 종류

프로그램	주요 내용
심리상담 프로그램 (마음나라)	▶ 외부 전문상담 : 1:1 상담, 집단상담,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등
	▶ 찾아가는 심신케어 : 심리상담, 뇌파·맥파 검사, 피지컬 케어 등
	▶ 직원 트라우마 극복 프로그램 : 근무 중 수용자로부터의 폭행, 지진 등 긴급 재난사태 발생 시 사건 초기부터 개입하여 종료 시까지 긴급 심리지원 제공
	▶ 자가진단 스마트폰 앱(손안의 마음나라) 서비스 제공
스트레스 집중치유 프로그램	▶ 마음나라 심신건강 유지 및 회복 칼럼 발행(격주)
	▶ 직무스트레스 관리과정 '힐링캠프'(2박 3일) : 포럼연극, 워킹테라피, 새로운 나의 자화상, 상담 등

독일 교정공무원 교육훈련 시스템 관련 자료수집



I. 출장 개요

1. 출장 목적

독일 교도관학교 및 교정시설을 참관하여 독일 교정공무원 교육 제도의 특징에 대해 파악하고, 교육프로그램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향후 국내 교정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려고 한다. 또한 독일 교도관학교 및 교도소 주요 인사와 상호 교류함으로써 교정 관련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상호 호혜적 관계를 형성하고자 한다.

2. 출장기간 및 기관

- 출장기간 2018. 6. 3.(일) ~ 6. 9.(토)
- 출장기관 및 면담자

출장지	면담자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교도관학교	베르너 헤스(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교도관학교장)
렘사이트 교도소	요르그 슈나이더(렘사이트 교도소 보안과장)
카스트롭 라옥셀 교도소	율리우스 반델트 소장(카스트롭 라옥셀 교도소장)
바덴뷔어덴베르크 주 교도관학교	요아킴 오베르펠 푸흐 소장(바덴뷔어덴베르크주 교도관학교장)

II. 우리 징벌 제도의 문제점

1. 방문 개요

- 일시 : 2018. 6. 4.(월) 09:00~14:00
- 위치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부퍼탈 론스도르프 지역
- 면담 대상 : 베르너 헤스 교도관학교장 등 3명

2. 기관 현황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교도관학교는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 소속되어 있는 36개 교도소의 신규 교도관 및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교정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이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교도관학교는 1952년에 최초로 설립되었으며, 2015년에 부퍼탈 론스도르프 지역으로 이전하였다. 현재 36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으며, 직원들은 크게 4종류의 담당(보안업무 담당, 일반행정업무 담당, 직업훈련 담당, 외국인수용자 관리업무 담당)을 맡고 있다. 보안업무는 실제 교도관들이 담당하고 있으며, 심리상담교육 및 직업훈련교육을 담당하는 교관을 별도로 채용하고 있다.

3. 시설 현황

건물은 총 5개이며, 교육실, 컴퓨터실, 도서관, 스포츠센터, 체육관, 식당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교육생들은 교육을 받는 동안 기숙사 생활(1인 1실, 270명 수용 가능)을 하고, 기숙사 생활을 원하지 않는 교육생들은 통학한다.



교도관학교 스포츠 교육

교도관학교 수업 참관

4. 교육 과정

교도관의 채용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36개 교도소에서 각각 별도로 실시하며, 채용된 교도관들은 약 1~2개월가량 교도소에서 근무한 후 교도관학교에 입학하여 2년의 교육을 받는다.

1)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교도관수는 약 6,600명이다.(2018. 6. 기준)

교육 방식은 이론 수업과 실습 수업을 병행하는 것이다. 약 350~400명의 교육생들을 15개~20개의 클래스로 나누어 수업을 진행한다. 클래스가 많으면 교육 비용 측면에서 부담이 많이 되지만, 세분화될수록 교육 효과가 매우 높기 때문에 클래스 수를 항상 유지시키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교육생이 이탈하는 경우가 있어, 교육 수료 인원은 시작 인원의 3/4 정도라고 한다. 이론수업은 2개월씩 5번 실시하며, 2개월의 이론수업이 끝나면 소속기관으로 복귀하여 일정 기간 실습 후 다시 교도관학교로 복귀한다(예: 2개월 신입 수용자 관리 이론 수업 → 4개월 관련 내용 실습 → 2개월 직업훈련교육 이론 수업 → 5개월 관련 내용 실습).

교육 순서는 3가지 테마로 나누어 순서대로 진행한다. 첫 번째 테마는 신입 수용자 관련 테마로, 신입 수용자 사전 평가 및 입소 절차 등에 대하여 교육한다. 두 번째 테마는 교도소 보안 및 행정업무 테마로, 수용자 계호업무·작업교육·상담기술 등을 교육한다. 세 번째 테마는 출소 수용자 관련 테마로, 출소를 앞둔 수용자 지원업무 등을 교육한다. 각 테마별 이론 교육을 마치면 소속기관에서 실습 교육을 하는데, 교육생들의 수업 만족도가 매우 높다.

수업 과목은 주로 법 관련 과목이 많으며,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형법·행정법·형사소송법·교정학 위주로 교육을 실시한다고 한다. 최근에는 교육학·심리학 등의 비중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미결수용자 중 약 60%, 기결수용자 중 약 35%가 외국인이라고 한다. 최근 외국인 범죄율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외국인 수용자 추방교육을 별도로 진행한다.

미결수용자 중 외국인 비율이 확연히 높은 이유는, 대부분의 외국인 범죄자들은 주소지가 없기 때문에 법정 소환 시 소환에 응하지 않아 구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독일 교도관의 정년은 만 67세로, 오랜 기간 건강하게 일하기 위해 여러 가지 스포츠·건강관리 교육을 실시한다고 한다. 또한 수용자 난동 진압 기술·보호 장비사용 교육·무기사용 교육도 실시하고 있다.

수용자 제압 훈련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교도소에서 현직 교도관이 파견되어 직접 교육하며, 이러한 교도관들을 트레이너라고 부른다. 트레이너들은 교육허가증을 발급 받아야 하며, 4년마다 이를 갱신해야 한다.

교육생들이 교도관학교에서 수강하는 교육시간은 총 1,170시간

이며, 개별적으로 복습을 권장한다고 한다. 교육생들은 마지막 이론수업을 마친 후 이론시험 1회, 마지막 실습수업을 마친 후 구술시험 1회를 치른다.

교육평가 점수는 총 18점 만점이며, 4점 미만의 점수를 받으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다. 만약 4점 미만의 점수를 받으면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추가로 1회 부여받으며, 또다시 4점 미만의 점수를 받을 시 낙제 처리된다.

교도관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시엔 공무원 신분이 아니다. 최종 시험을 합격해야 공무원 신분을 획득한다. 교육비용은 나라에서 부담하며, 교육 기간 일정한 보수를 지급한다고 한다.²⁾

Ⅲ. 렘사이트 교도소 참관

1. 방문 개요

- **일시** : 2018. 6. 5.(화) 09:00~13:30
- **위치**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주 부퍼탈 룬스도르프 지역
- **면담 대상** : 요르그 슈나이더 보안과장³⁾ 등 4명

2. 기관 현황

렘사이트 교도소는 1906년에 설립된 교도소로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⁴⁾에서 가장 규모가 크며, 착공된 지 100년이 넘는 구식 수용동과 최근에 지어진 신식 수용동이 혼합되어 있는 4층짜리 교도소이다. 수용정원은 860명(기결수 560명, 미결수 300명)이며, 수용인원은 2018년 6월 5일 기준 총 765명(기결수 516명, 미결수 249명)이다.

약 3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정복교도관의 비율은 2/3이고 약 50명의 여성교도관이 근무하고 있다. 현재 직원의 수가 부족해 근무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한다.

지은 지 100년이 넘었다는 렘사이트 교도소의 외벽은 매우 튼튼해 보이는데, 내부에는 철조망을 설치하여 수용자의 도주를 방지하고 있다. 철조망에 물체가 접근 시 경보음이 울리며, 통제실의 CCTV가 해당 장소를 촬영한다.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구역에서 수용자들이 이동 시, CCTV가 자동으로 이들의 이동 경로

를 따라 촬영하며 이동 경로는 자동으로 저장된다. 외정문에서 차량통제를 하고 있었으며, 외정문 사무실에 중앙통제실이 있다. 또한 이곳에 직원들의 사물함에 있으며 출입 시 휴대폰 등 전자기기를 사물함에 보관하고, 개인이 소지하는 무전기와 열쇠를 수령하여 근무장소로 이동한다. 외정문의 창문은 개폐가 되지 않는 구조였고, 외부에서는 정문 안이 보이지 않도록 되어 있다. 외정문으로 들어가면 바로 변호인 접견실이 있으며, 변호인 접견실에도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다.

3. 수용자 처우

렘사이트 교도소는 경범죄 수용자부터 중범죄 수용자까지 폭넓게 수용하고 있으며, 종신형 수용자는 약 40명 정도 수용되어 있다. 독거수용이 원칙이며, 희망자에 한해 3인까지 혼거수용이 가능하다. 자살이 우려되는 수용자는 혼거수용하며, 입소 전부터 자살위험군으로 분류하여 철저히 관리한다. 독거 수용거실에는 1인용 침대가 있으며, 혼거 수용거실에는 2층 침대를 사용한다. 거실 내에는 높은 위치에 창문이 있으며, 수용자가 자유롭게 커튼을 열고 닫을 수 있다. 또한 방마다 CD플레이어가 있어 듣고 싶은 CD를 대여해 음악을 자유롭게 들을 수 있으며, 거실 벽에 수용자가 원하는 포스터나 그림을 부착할 수 있다. 수용자들은 평일에 8시간 직업훈련을 하고, 하루 1시간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 또한 동아리 활동 같은 수용자 소규모 모임이 있어, 독서·미술·종교 활동 등 취미생활을 할 수 있다.

렘사이트 교도소 내에 교회 건물이 있으며, 내부에 컴퓨터 교육장이 있어 교실로도 사용한다. 렘사이트 교도소에서는 주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는데, 이 교육이 장기수들의 대학 진학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한다.

또한 직업훈련 대상 수용자에겐 1일 약 10~12유로 작업비용을 지급한다. 렘사이트 교도소에서는 철강생산 작업을 주로 하는데 생산한 철강을 각 교도소에 조달하기도 하고, 민간주문을 받아 인터넷에서 판매하기도 한다.

수용자 중 긴급환자가 발생했을 시에는, 교도소 전용 종합병원이 있어 그 병원으로 이송한다. 그러나 위급할 시에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한다. 렘사이트 교도소 수용자 중 정신질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정신질환자 관리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수용자 중 30% 이상이 외국인 수용자로 외국인 수용자 관리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용거실 내에 비상벨이 있어,

위급한 상황 발생 시 비상벨을 누르면 교도관이 즉각 출동한다. 정복교도관은 제복을 착용하나 사복교도관은 제복이 아닌 사복을 착용하고 근무한다. 한편 교육을 받는 수용자들은 수용자복이 아닌 사복을 착용하고 있어, 교도관과 수용자들의 구분이 쉽지 않았다. 웹사이트 교도소 교도관들은 상호 간 안면을 익히고 있고, 소지하고 있는 열쇠뭉치로 교도관과 수용자를 구분할 수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답한다.

웹사이트 교도소는 수용자 개인 사생활을 철저히 보장하기 때문에, 교도관이 수용 거실을 볼 수 있는 시찰구가 없다. 그러나 자살 우려가 있는 수용자는 시찰구가 있는 수용거실로 배정하며, 시찰구로도 계호가 불가능할 시에는 CCTV 거실로 배정한다고 한다. 만약 CCTV 거실에 배정되었는데도 자살시도를 멈추지 않을 시엔 보호침대를 사용하여 별도 거실에 배정한다.

접견은 화·수·목·일요일에 실시하며, 접견인들은 사전에 접견을 신청하여 시간을 정한다. 접견은 해당일에 오전 1그룹, 오후 1그룹으로 2회 차로 나누어서 진행한다.

렘사이트 교도소는 가족접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족접견실은 총 6개가 있다. 회차당 4시간 실시하며, 교도관들이 1시간마다 가족접견실을 점검한다.

수용자 호송 차량이 우리나라와 구조가 달랐는데, 호송 차량 내부에 1명씩 들어갈 수 있는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었다. 이동 시 수용자는 수갑을 착용하지 않은 채 칸막이 내부로 들어가고, 직원은 외부로 나올 수 없게 칸막이 문을 잠근다.

4. 교정공무원 교육

렘사이트 교도소 내부적으로 멘토·멘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력자가 신규 직원에게 근무방법·근무경험 등을 공유한다. 멘토·멘티 프로그램은 신규직원들이 빠르게 교도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교도관학교에 입학하기 전 채용된 신규 교도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한다.

렘사이트 교도소 자체적으로 신규 교도관 채용을 진행하며, 채용된 교도관들에게 멘토·멘티프로그램을 2개월간 실시한다. 2개월간의 프로그램을 마치면 내부회의를 거쳐 교도관학교 입학 여부를 결정한다.

입학이 결정된 신규 교도관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교도관학교에 입학하여 2년간 교육과정을 거치고 다시 렘사이트 교도소로 복귀한다. 교도관학교에서 일정 기간 이론수업을 받은 후, 실습수업은 렘사이트 교도소에서 진행한다.

교도소에서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교도관(AVD)을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교도관학교에 강사(트레이너)로 파견하기도 하고, 심리상담사·직업훈련교사들을 일정기간 교도관학교로 보수교육을 보내기도 한다.

Ⅳ. 카스트룹 라옥셀 교도소 참관

1. 방문 개요

- **일시** : 2018. 6. 6.(수) 13:30~17:00
- **위치** :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윈스터 지역
- **면담 대상** : 올리우스 반델트 교도소장 등 3명

2. 기관 현황

카스트룹 라옥셀 교도소⁵⁾는 1968년에 설립된 개방교도소로 규모는 약 13만㎡(4만 평)이며, 17개의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수용정원은 572명이며, 수용인원은 2018년 6월 6일 기준 총 567명이다. 마약·성범죄 수용자도 수용 중이며, 567명 모두 25세 이상 남성 수용자다. 약 2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정복교도관은 약 125명이고, 사복교도관은 약 75명이다.

3. 수용자 처우

카스트룹 라옥셀 교도소는 개방교도소라 교도소 외벽 및 철조망 등이 없으며, 수용자들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사복차림으로 교도소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다. 언제든지 수용자 간에 대화가 가능하며, 직원들과 수용자 간에도 소통이 자유롭다. 실업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형량이 적은 수용자들은 직장 출퇴근을 가능하게 했다. 수용자들은 자동차를 교도소 내에 주차할 수 있어 본인 차량으로 출퇴근한다. 연간 약 350명가량 수용자들이 이 제도의 도움을 받고 있으며, 교도소와 수용자간에 신뢰가 쌓이면 수용자는 허가 하에 차량으로 가정도 방문할 수 있다.(원칙상 근무지 외 이동 불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에서는 연간 30명가량의 자살 수용자가 발생한다. 자살 수용자의 대부분은 독거수용자들로, 독거수용자들의 시설 내 적응 및 사회 내 적응을 돕기 위해 개방 처우 비율을 높이려고 시도 중이다.

5) 수용동 13개(징벌 및 이송대상자 수용동 1개 포함), 사무실 건물 4개

판결 전에 자신의 죄를 인정한 수용자에게 개방처우교도소에 수용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한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수용자의 23%가 개방 처우를 받고 있다.

수용자들은 오후 10시 전까지 각자 자신의 수용거실로 입실 후 취침하며, 오후 10시 이후에는 교도소 내 극소수의 직원들만 근무한다. 현재까지 야간에 보안사고가 일어난 적은 없었으며, 만약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에 통보하여 경찰 지원을 받는 시스템이 형성되어 있다고 한다. 수용자 인원 점검은 수용동 담당 교도관이 매일 2회 실시한다.

〈단계별로 진행되는 수용자들의 개방 처우〉

- 1 교도소 내에서 가족들과 접견 가능
- 2 가족들과의 접견 시, 가족들과 외부에서 식사를 하고 싶다면 조건부 허용
- 3 주말에 한하여 외출 허가(평일은 작업 관계로 불가)
- 4 장소를 지정하여 외박 허가
- 5 직업 활동 가능(원 직장 출퇴근)

개정 후 현재까지 약 25,000건의 외출 허가가 있었으며, 이 중 21건의 미복귀 문제가 발생했다. 또한 약 10,000건의 외박 허가가 있었으며, 이중 7건의 미복귀 문제가 발생했다.(통상적으로 미복귀 시 5시간 정도 기다리고, 그 이후에도 복귀하지 않으면 경찰에 연락하여 수배한다.)

카스트롭 라옥셀 교도소에서는 폭력적이고 다혈질적 수용자들에게 강아지를 키우게 하는데, 이는 수용자들의 심성 순화에 많은 기여를 한다고 한다. 교도소 내에는 수용자들이 거위, 닭 등을 키르는 농장도 있다.

카스트롭 라옥셀 교도소에서는 수용자가 생산한 작업물품을 자체 온라인 샵으로 판매하는데, 물품은 주로 티셔츠, 목재장식, 철제장식이다. 2008년 이후부터는 크리스마스 때 교도소 내부를 수용자들이 만든 장식품으로 꾸민다고 한다. 최근 크리스마스 때 인근 주민들을 초청하여 교도소 내부에 마켓을 열었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으며, 방문객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한다. 수용자들이 외부인과 소통한다는 것 자체로, 수용자 교화에 큰 효과가 있다고 한다. 수용자들의 창의성을 위해 자율적인 작업도 일부 허용한다.

교도소 내에는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포장마차가 있으며, 햄버거, 감자튀김 등을 판매한다. 작업하는 수용자들은 통상적으로 일당 8유로 정도를 받는데, 이 금액으로 원하는 음식을 구매한다고 한다.



카스트롭 라옥셀 교도소 농장(좌)과 카스트롭 라옥셀 교도소 목재작업장

카스트롭 라옥셀 교도소에 수용된 장기수들은 석방 후 사회적으로 상당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으며, 출소일에 교도소 밖으로 나가지 않으려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로 석방 전 교육프로그램 및 사회적응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있다.

V. 바덴뷔어텐베르크주 교도관학교 방문

1. 방문 개요

- 일시 : 2018. 6. 7.(목) 09:00~14:00
- 위치 : 바덴뷔어텐베르크주 슈투트가르트 지역
- 면담 대상 : 요아킴 오베르펠 푸흐 소장

2. 기관 현황

바덴뷔어텐베르크 교도관학교는 바덴뷔어텐베르크주 교도소의 신규 교도관 및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교정교육을 실시하는 교육 기관이다.

바덴뷔어텐베르크 교도관학교는 1966년에 최초로 설립되었으며, 설립 당시에는 스텐하임 교도소에 소속되어 있다가 1975년 분리되었다. 현재는 바덴뷔어텐베르크 교도관학교 옆에 스텐하임 교도소가 위치해 있다⁶⁾.

교도관학교의 규모는 매우 작았으며, 4개의 교실과 직원사무실, 공용 주방(식당), 기숙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숙시설은 2인 1실로 총 40명 수용 가능하다. 기숙시설이 매우 부족하여 중측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예산상 문제점이 있다. 이전에는 폐쇄된 교도소 건물이 있어 기숙사로 개조하여 사용하였으나, 현재는 교육실습장으로 사용한다고 한다. 층마다 샤워실과 화장실이 있으며, 각 층 교육생들이 공동으로 사용한다.

바덴뷔어텐베르크주 교도관학교의 현황 청취 전, 대한민국의 교정공무원 교육시스템과 관련하여 PPT 발표를 진행하였으며,

6) 외벽을 사이에 두고 교도소와 교도관학교가 마주보고 있다.

이후 토론을 진행하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3. 교육 과정

교도관의 채용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교도관학교와 마찬가지로 바덴뷔어텐베르크주의 교도소에서 각각 별도로 실시한다. 채용된 교도관들은 약 4개월가량 해당 교도소에서 근무한 후 교도관학교에 입학하여 1~2년의 교육을 받는다.

교육 방식은 이론 수업과 실습 수업을 병행하는 것으로 20~25명씩 그룹을 나누어 수업을 진행한다. 정복교도관과 사복교도관의 이론·실습 수업 일수가 다르며, 각 분야 모두 이론 수업보다는 실습 수업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바덴뷔어텐베르크주 교도관학교의 직원 수는 파트타임 강사를 포함, 약 80명이다.

주로 심리·법률·의료 교육을 실시하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정신질환사범·마약사범관리 관련하여 많은 교육 시간을 부여한다. 교육의 막바지에 교육생의 실습과정을 비디오로 촬영하여, 스스로 점검하는 과정을 거친다. 연간 약 250명의 교육생이 교도관학교를 졸업한다.

VI. 시사점 및 특이사항

1. 교육과정의 차이

대한민국 교정공무원 교육과정은 10주~12주 과정이지만, 독일의 교육과정은 2년 과정이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이며, 이는 교정공무원 채용과정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대한민국에서는 교정학 등 법률 과목을 사전에 학습하여 공무원 시험을 응시한 후 채용되지만, 독일에서는 학교 졸업장 및 자격증 등 서류로 심사하여 채용된다. 이와 관련, 독일 신규교도관들의 교정 관련 사전지식이 부족하므로, 교육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생각된다.

독일의 교육과정이 2년인 점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되지만, 인력수급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단점이 되기도 한다. 현재 독일은 일선 교정기관 인력난을 겪고 있어 신속한 인력수급을 원하나, 교도관학교는 전문적인 교정공무원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 기간을 줄일 계획이 없다고 한다.

독일의 교육과정을 우리나라에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나, 독일 교육과정의 장점인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은 우리나라에 좋은 참고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물적 인프라를 위한 노력

독일의 교도관학교 및 교도소의 물적 인프라는 예산상의 문제로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었으나, 직원들의 교정에 대한 열정과 자부심은 매우 강하게 느껴졌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교도관학교는 2015년에 신축 건물로 이전하여 시설·장비 등 물적 인프라가 뛰어났으나, 바덴뷔어텐베르크주 교도관학교는 오래된 건물로 전자에 비해 다소 미흡한 면이 있었다. 물적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예산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직원들이 교육생들의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3. 수용자들의 인권 중시

독일은 수용자들의 인권을 매우 중요시 여기며, 우리나라와 달리 수용거실문에 시찰구가 없는 점이 인상 깊었다. 수용자들은 대부분 독거실을 사용하며, 수용거실 내부에 TV·CD플레이어·도서·잡지 등을 자유롭게 비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자살의 위험성이 있으나 입소 전 심리검사 등으로 자살위험군 수용자를 철저히 분류하여 자살 위험을 최소화한다고 한다.

4. 높은 개방 처우자 비율

독일의 경우 개방 처우자의 비율이 전체 수용자의 약 23%로 우리나라에 비해 굉장히 높았다. 수용자들이 사회에 복귀했을 때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교도소를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하여 수용자들과 접점을 마련하는 점이 긍정적으로 느껴졌다. 카스트롭 라옥셀 교도소는 크리스마스 전에 수용자들이 직접 교도소 내부를 장식하여 꾸미고, 인근 주민들에게 개방하여 베틀시장(Market)을 연다고 한다. 이 제도는 2008년부터 실시하였으며, 해가 지날수록 방문자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타 지역에서도 많이 찾아온다고 한다. 베틀시장 행사는 수용자들에게 정서적 감화를 주고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한다.

5. 정리하며

각 기관 방문 시, 독일 관계자들과 면담의 시간을 가졌으며 독일 측에서는 한국의 교정제도에 대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독일의 교정제도를 우리나라에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이 일부 있었지만, 오히려 우리나라가 독일에 비해 뛰어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느껴졌다. 이번 출장이 교정정책과 관련하여 독일 측과 지속적으로 교류 및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교정학

지상강좌

교정학은 교화개선 및 교정행정과 관련된 일련의 문제들을 이론적·과학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으로, 사회학과 심리학, 정신의학 등 관련 학문의 종합적 응용이 요청되는 분야다. '지상강좌' 코너를 통해 교정학 관련 문제를 풀어보자.

1. 다음 □에 들어가는 각 숫자의 합은 얼마인가?

- ㉠ 수용자의 보호실 수용기간은 □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간연장은 □일 이내로 하되, 계속하여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 수용자의 진정실 수용기간은 □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간연장은 □시간 이내로 하되, 계속하여 □일을 초과할 수 없다.

- ① 62 ② 63 ③ 64 ④ 65

- ㉠ 수용자의 보호실 수용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간연장은 7일 이내로 하되, 계속하여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25
- ㉡ 수용자의 진정실 수용기간은 24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특히 계속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간연장은 12시간 이내로 하되, 계속하여 3일을 초과할 수 없다 = 39

보호실과 진정실의 비교

구분	보호실	진정실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살·자해의 우려 • 질병으로 인한 특별한 보호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비 또는 기구 등을 손괴 • 소란행위 계속하여 수용생활 방해 (강제력 행사 또는 보호장비 사용해도 위의 행위 계속)
의무관의 의견 고려	○	×
연장시 의무관의 의견 고려	○	○
기간	15일 이내	24시간 이내
연장기간, 최대 수용기간	7일 이내, 최대 3개월	12시간 이내, 최대 3일
수용 및 연장수용 사유고지	○	○

정답 ③

2. 보호장비의 사용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몇 개인가?

- ㉠ 소장은 보호장비 사용을 명령하거나 승인하는 경우에는 보호장비의 종류 및 사용방법을 구체적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보호장비를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 ㉡ 수갑은 구체적 상황에 적합한 종류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한손수갑은 일시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거나 다른 보호장비로 교체하여야 한다.
- ㉢ 수용자가 머리보호장비를 임의로 해제하지 못하도록 다른 보호장비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 ㉣ 보호의자는 그 사용을 일시 해제하거나 완화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해제 후 4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다시 사용할 수 없다. 보호침대, 보호복의 사용시간도 이와 동일하다.
- ㉤ 보호침대와 보호복의 사용은 자살·자해의 우려가 큰 사정이 있는 경우에 사용하여야 한다.
- ㉥ 개인포승은 일시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계속하여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포승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은 틀린지문이다.

- ㉠ 일회용수갑은 일시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을 달성한 이후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거나 다른 보호장비로 교체하여야 한다.
- ㉢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해제 후 4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다시 사용할 수 없다.
- ㉤ 최근 규칙개정으로 개인포승은 삭제되었다. 벨트형 포승이 추가되었다.

정답 ②

3. 다음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에 대한 보안장비 사용요건은 몇 개인가?

- ㉠ 수용자를 도주하게 하려고 하는 때
- ㉡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거나 끼치려고 하는 때
- ㉢ 위력으로 교도관 등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때
- ㉣ 교정시설의 설비·기구 등을 손괴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 ㉤ 교정시설에 침입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 ㉥ 교정시설의 안에서 교도관 등의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
- ㉦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 ㉧ 자살하거나 자살하려고 하는 때
- ㉨ 자해하거나 자해하려고 하는 때

-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5개

㉠㉡㉣은 수용자 이외의 자에 대한 보안장비 사용요건이고, ㉥은 '자살하거나'가 틀린 지문이며, ㉠㉡㉢㉤㉥은 맞는 지문이다.

정답 ④

교정본부 NEWS

더 많은 교정본부 소식은 교정본부 홈페이지(www.correction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9

September 2018 Vol. 508

아시아·태평양 교정본부장회의 참석

지난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최강주 교정본부장 등 6명은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아시아·태평양 교정본부장회의에 참석했다. 캐나다, 일본 등 24개국의 회원국이 참가한 이번 회의에서는 '변화하는 교정'을 주제로 아·태 지역 교정행정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교정공무원 업무용복장(쿨토시) 신설 계획안 시달

교정본부는 지난 7월 31일 교정공무원 업무용복장(쿨토시) 신설 계획안을 시달하였다. 자외선 차단 및 열기, 땀 배출 효과가 탁월한 쿨토시를 지급함으로써 교정공무원이 여름 근무복을 착용할 시 근무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8년도

제2회 수형자 초졸·중졸·고졸학력 검정고시 실시

지난 8월 8일 안양교도소 등 19개 기관에서 2018년도 제2회 수형자 초졸·중졸·고졸학력 검정고시를 실시하였다. 대구교도소 등 45개 기관 310명(초졸 4, 중졸 64, 고졸 242)이 응시, 총 219명(초졸 4, 중졸 46, 고졸 169)이 합격하여 70.6%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매년 2회 수형자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검정고시는 최근 5년간 평균 80% 이상의 높은 합격률을 보이고 있다.

법무부 교정시설 설계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작품 접수 및 심사

지난 8월 17일 법무부 교정시설 설계 대학생 아이디어 공모전 작품에 대한 1차 심사가 진행되었다. 21C 교정시설 표준모델 설계(수용자 200명 규모의 미니교도소)를 주제로 한 이번 공모전에는 8월 16일까지 총 106팀의 작품이 접수되었다. 이날 1차 심사를 통해 총 6팀이 선정되었으며 8월 31일 6팀에 대한 2차 심사가 진행되었다.

광복절 기념 가석방 실시

지난 8월 14일 889명을 대상으로 광복절 기념 가석방이 실시되었다. 앞서 8월 9일에는 931명(적격 888, 부적격 40, 심사보류 3)을 대상으로 가석방심사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중앙일보 주최 교정정책 좌담회 참석

지난 8월 17일 서울 서소문동 중앙일보 5층 회의실에서 중앙일보 주최 교정정책 좌담회가 개최되었다. 중앙일보 연재 기획기사 「2018년 교도소 실태 보고서」와 관련, 교정 분야 전문가의 정책 제안을 위해 마련된 이번 좌담회에는 유병철 교정정책단장을 비롯하여 국회의원, 교정 관련 분야 교수 등 8명이 참석하여 교정 정책과 관련한 열띤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제6차 심리치료중앙자문위원회 개최

지난 8월 27일 교정본부 회의실에서 제6차 심리치료중앙자문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었다. '정신질환수형자 심리치료 프로그램 과정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 이번 회의에는 경기대학교 이백철 교수 등 총 8명이 참석하였다. 조현섭 한국심리학회장에 대한 신규 위원 위촉식이 실시된 후 정신질환의 범위, 프로그램의 명확한 목표 설정 및 정신질환에 대한 직원 전문성 제고 필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회의를 진행하였다. 향후 회의 결과는 세부 검토 후 정신질환자 심리 치료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될 예정이다.

제53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 시범단 합숙훈련 실시

제53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 시범단 합숙훈련이 지난 8월 28일부터 시작되었다. 전국 교정기관의 무도 유단자 직원들로 구성된 총 19명의 태권도·유도 시범단은 제53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 개최일인 9월 14일 전까지 17일간 진천 법무연수원에서 합숙하며 훈련을 받았다.



서울지방교정청

서울지방교정청 / 교위 유경열

성매매 및 가정폭력 예방 교육 실시

서울지방교정청은 8월 1일 한국성폭력예방교육원 안명자 원장을 초빙하여 성매매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다. 직원들은 교육을 통해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함양하고, 조직 내 양성 평등문화 정착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었다.

서울구치소 / 교도 변무관

사랑의 헌혈 행사 실시

서울구치소는 8월 3일 전 직원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헌혈 행사를 실시하였다. 헌혈자 감소로 혈액적 정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서울구치소 직원들은 자발적으로 사랑의 헌혈운동에 동참, 생명 나눔을 실천하고 혈액수급 안정화에 기여하였다.

안양교도소 / 교도 김희락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참관 실시

안양교도소는 8월 7일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5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하였다. 이번 참관은 각종 범죄의 실태와 원인, 그 대책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연구원에게 교도관의 전문성을 알리고 체계적인 교정행정을 소개하는 시간이 되었다. 또한 연구원들은 중앙통제실과 수용동, 작업장 등의 시설을 둘러봄으로써 교정시설의 실태와 개선 방향을 알게 되었다.

수원구치소 / 교사 유동경

직원 자녀 청소년 봉사활동 실시

수원구치소는 8월 9일부터 직원 자녀 등 29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봉사활동과 연계한 시설참관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 및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학생들은 교정홍보 동영상 시청한 후 준법교육을 받았으며, 구치소 내외의 교정시설을 견학하였다. 또한 시설외곽 주변의 쓰레기를 줍고 청소를 하는 등 봉사활동에 참여하였다.

서울동부구치소 / 교사 최재완

비상소집 훈련 및 좋은 부모 되기 직장교육 실시

서울동부구치소는 8월 8일 전 직원 비상소집 및 '좋은 부모 되기' 직장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서울동부구치소 교정위원이자 정신과 초빙 진료를 진행하고 있는 정신건강 의학과 전문의 김봉수 원장이 강사로 나서 '아이를 칭찬하는 방법', '아이가 잘되는 길', '행복이란 무엇인가' 등을 주제로 교육하였다.

인천구치소 / 교사 김대현

인천지방법원 직원 자녀 참관 실시

인천구치소는 8월 14일 인천지방법원 직원 자녀들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하였다. 직원자녀들은 보안 교육을 받은 후 교정홍보 동영상을 시청하였다. 이어 접이식 교도봉, 수갑 등을 직접 만져보고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서울남부구치소 / 교위 유진규

사랑의 헌혈 행사 실시

서울남부구치소는 8월 7일 헌혈량 확보에 기여하고자 단체 헌혈을 실시하였다. 서울남부구치소 뿐만 아니라 인근 서울남부교도소까지 함께 참여한 이번 헌혈 행사는 대한적십자사 서울중앙혈액원의 협조를 받아 이동 헌혈버스에서 실시되었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 / 교위 권오일

교정가족 시설 참관행사 개최

화성직업훈련교도소는 8월 10일 직원 자녀들의 여름방학을 맞아 소속 직원 가족들을 초청, 시설 참관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가족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는 요즘 가족 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가족의 소중함을 되새기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의정부교도소 / 교위 권기중

폭염대책반 운영

의정부교도소는 8월 1일부터 기록적인 무더위로 인한 응급상황에 대비하고자 폭염대책반(수용·시설·의료)을 운영하였다. 또한, 에어컨이 설치된 대강당 등에서 영화를 관람하도록 조치함은 물론, 유관기관인 의정부소방서의 도움을 받아 수용동 옥상에 총 12톤의 물을 뿌려 폭염이 해소되도록 노력하였다. 수용자에게는 얼음 생수 총 3만 6,100개, 빙과류 총 4,220개, 식용 얼음 총 1,701kg를 지급하였다.

여주교도소 / 교사 송재훈

외부강사 초빙 음주운전예방 교육 실시

여주교도소는 8월 2일 여주경찰서 경비교통과 김갑길 조사관을 초빙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 교육을 실시하였다. 음주운전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교통사고 발생 사례, 적발 시 처벌규정 등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다.

서울남부교도소 / 교사 명수환

사랑의 헌혈 행사 실시

서울남부교도소는 8월 7일 사무청사 앞 이동 헌혈버스에서 생명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헌혈 행사를 실시하였다. 헌혈자 감소로 혈액 수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혈액 공급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나눔문화를 실천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는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진행되었다.

춘천교도소 / 교사 김민구

나라사랑 공직자 안보교육 실시

춘천교도소는 8월 23일 청사 교육실에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나라사랑 공직자 안보교육을 실시하였다. 국가의 소중함과 안보의식 고취를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에는 통일교육원 소속 전문 강사가 초빙되었다. 교육에 참석한 직원들은 전문 강사의 교육을



수원구치소



인천구치소



여주교도소

NEWS

통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고, 국가의 소중함과 안보의식을 고취하였다.

원주교도소 / 교사 천병훈

교정협의회 얼음생수 기증

원주교도소 교정협의회는 8월 6일 원주교도소에 얼음생수 5,000병을 기증하였다. 이희준 회장은 "열악한 환경에서 더위를 이겨내고 있는 수용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기가 되길 바라며 교정위원들 또한 수용자들의 교정·교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릉교도소 / 교위 이태석

교화 행사 실시 및 얼음을 지원

강릉교도소는 8월 14일 장애인 수용자, 환자 수용자 등을 대상으로 실외운동을 대체한 교화 행사를 실시하였다. 행사는 역사인식 제고를 위한 교화프로그램

을 시행하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또한 연일 지속되는 폭염에 대비하여 전 수용거실에 아이스박스와 얼음 물을 수용자에게 지원하였다.

영월교도소 / 교사 손동규

수용자 위한 얼음생수 지급

영월교도소는 8월 6일 극동방송으로부터 생수 1만 병을 지원 받았다. 이날 기증받은 생수는 얼린 상태로 보관돼 휴일 혹은 폭염주의보 발령 시에 수용자들에게 지급되었다.

수원구치소 평택지소 / 교사 정원기

양성평등 및 성폭력 예방 교육 실시

수원구치소 평택지소는 8월 29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및 성폭력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다. 전 덕심향상교육원 유정훈 원장이 강사로 초빙된 이번 교육은, 직장 내 성폭력 사건사고 사례, 양성평등

하고 행복한 직장문화 조성 등을 주제로 진행되었다. 이에 전 직원들이 직장 내 성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소망교도소 / 배현순

2018년 제2회 중졸·고졸 검정고시 실시

소망교도소는 8월 8일 2018년 제2회 중졸·고졸 검정고시를 실시하였다. 소망교도소 수용자 13명을 비롯하여 여주교도소 및 국군교도소 수용자 등 총 23명의 수용자가 중졸, 고졸 분야로 나뉘어 그동안 자신이 갈고닦은 학업 실력을 발휘하였다.

대구지방교정청

대구지방교정청 / 교위 허광명

청렴실천·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 개최

대구지방교정청은 8월 6일 대회의실에서 '청렴실천 및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를 개최하였다. 결의대회 후에는 박성권 전 국민권익위 부패방지 국장을 초빙해 '청렴의 중요성과 공직자의 자세'를 주제로 강의를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청탁금지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실천함으로써 건전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자 마련되었다.

대구교도소 / 교위 김재현

가족과 함께 하는 사랑캠프 실시

대구교도소는 8월 21일 '우리 가족 행복울타리'를 주제로 수용자 가족사랑캠프를 실시하였다. 수용자 가족사랑캠프는 법무부와 대구교도소가 주최하고, 달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진행을 맡았다. 수용자들은 '가족과 함께 T-셔츠 만들기' 등 다양한 가족관계 증진프로그램을 통하여 가족과의 유대를 강화하고 안정된 수용생활을 다짐하였다.

부산구치소 / 교사 박창훈

교정협의회 수용자 생수 기증

부산구치소는 8월 21일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로부터 생수 1만 병을 기증받았다. 이번 생수 기증은 지난 6월 1만 7,000병, 7월 1만 7,000병에 이은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 추가 기증이다. 기증받은 생수는 얼린 상태로 보관하여 수용자에게 지급하였다. 한편, 부산구치소 교정협의회는 '사랑의 멘토링 데이' 행사, 불우수용자 영치금 지원, 종교관 물품 기증 등을 통해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한 지원을 하고 있다.

경북북부제1교도소 / 교사 김남규

경북북부제1교도소 - 금정호법률사무소, 업무협약 체결

경북북부제1교도소는 8월 8일 경북 안동시에 위치한 금정호법률사무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금정호법률사무소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법률서비스에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촌지역과 다문화가정 등을 위해 무료 법률 자문 활동을 해왔다. 이번 경북북부제1교도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교도관들의 공무수행 중 민·형사상 쟁송사건 등에 대한 법률 상담과 소송업무에 대한 자문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창원교도소 / 교도 박혜빈

우회경 소장 취임

창원교도소는 8월 27일 우회경 소장 취임식 행사를 가졌다. 우회경 소장은 취임사를 통해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창원교도소 소장의 직책을 맡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깨끗하고 청렴한 교정풍토 조성을 위해 법과 원칙에 근거하여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더 나은 내일, 희망의 교정이라는 이념을 실현하는 창원교도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교도소 / 교도 강민승

사랑의 헌혈 행사 실시

부산교도소는 8월 8일 헌혈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헌혈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대한적십자사 부산혈액원의 협조로 직원 헌혈을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혈액 수요량은 증가하는 반면, 헌혈 지원자는 감소하는 상황에 대비한 것으로 부산교도소 직원들은 적극적으로 사랑의 헌혈 나눔 행사에 동참하였다.

대구지방교정청

포항교도소 / 교사 권대희

류동백 소장 취임

포항교도소는 8월 27일 오전 9시에 청사 2층 대회의실에서 류동백 소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류동백 소장은 취임사에서 "남들 위에 있는 사람은 밑에 있는 사람보다 자유가 더 많이 제한된다"는 율리우스의 말을 인용하며 "공직자로서 청렴성과 도덕적 가치를 지니길 바란다"고 직원들에게 당부했다.

진주교도소 / 교위 성태현

수용자 특식 지급

진주교도소는 8월 16일 교정협의회로부터 수용자를 위한 1kg짜리 삼계닭 580마리를 기증받았다. 기증받은 삼계닭은 취사기로 찐 다음 수용자 한 사람 당 반 마리씩 말뚝에 배식하였다. 이에 수용자들은 무더운 여름을 나는 데 조금이나마 활력을 얻었다.

경북직업훈련교도소 / 교도 조진호

김왕무 소장 취임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김왕무 소장이 8월 27일 취임했다. 김왕무 소장은 "수용질서 확립과 직업훈련을 통해 수용자의 성공적인 교정교화를 실현, 국민에게 신뢰받는 교정행정을 펼쳐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김왕무 소장은 1990년 교정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7년 교정관, 2016년 서기관으로 승진하였다. 서울남부구치소 분류심사과장, 경북북부제1교도소 보안과장, 인천구치소 총무과장, 안양교도소 부소장 등 주요직을 역임하였다.

안동교도소 / 교사 김길수

수용자 자녀 장학금 전달 및 참관 실시

안동교도소는 8월 17일 모범수용자 자녀들을 대상으로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안동교도소 교정위원으로 활동하는 대남직물 조중래 대표의 후원을 받아 실시된 이날 행사에는 중학생인 모범 수용자 자녀 2명이 각 50만 원씩 총 100만 원을 받았다. 이와는

별도로 안동교도소 내 각 취업장에서 모범 수용자로 선발된 20명에게는 생활지원금 각 7만 원씩, 총 140만 원을 전달하였다. 또한 이날은 모범 수용자 가족을 대상으로 교정시설을 공개하는 참관이 실시되었다.

김천소년교도소 / 교위 김기년

수용자 특식 지급

김천소년교도소는 8월 20일 DGB금융그룹 사회공헌재단으로부터 닭백숙, 팔방수 등 후식기 나기 특식을 지원 받고 수용자들에게 지급하였다. DGB금융그룹은 수용자를 위한 교정교화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2년부터 꾸준히 교정교화 후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북북부제3교도소 / 교도 이우성

수용자 가족접견 실시

경북북부제3교도소는 8월 21일부터 이틀간 수용자 8명과 가족 21명을 대상으로 가족접견을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수용생활로 인해 가족들과 관계 회복이 필요한 수용자들이 소원해진 가족 간의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안정된 수용생활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울산구치소 / 교사 이지수

도시가스 공사 실시

울산구치소는 6월 25일부터 8월 8일까지 40일간 비상대기숙소와 청사 도시가스 인입배관 및 기계설비 등 공사를 실시하였다. 1994년 2월 5일 개청한 울산구치소는 겨울이 되면 청사 기계실의 매캐한 기름 냄새가 번져 근무환경이 열악하였다. 이번 공사로 도시가스가 공급되어 기계실을 비롯한 청사 근무환경이 개선된다.

경주교도소 / 교위 박상신

기증받은 아이스크림 지급

경주교도소는 8월 3일 교정협의회 최병오 부회장으로

부터 아이스크림 1,200개를 기증받아 수용자들에게 나눠 주었다. 기증받은 아이스크림은 금요일과 토요일, 일요일 3일에 걸쳐 후식기 무더위에 지친 수용자들에게 지급하였다.

통영구치소 / 교위 조정훈

사랑의 아이스크림 기증

통영농협소속 고주모(고향)을 사랑하는 주부들의 모임 회원들은 8월 3일 통영구치소를 방문하여 생수와 아이스크림을 수용자들에게 기증하였다. 생수와 아이스크림은 어느 해보다 더운 후식기를 지내고 있는 수용자들이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한 수용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통영농협 고주모 회원들이 마련하였다.

밀양구치소 / 교사 이상협

밀양시 보건소와 함께하는 직원구강건강 교육 실시

밀양구치소는 8월 8일부터 이틀간 밀양시 보건소와 함께 구강건강을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하였다. 밀양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류동희, 류순옥 강사가 밀양구치소를 방문, 청사 대회의실 및 보안과 직원교육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다. 이날 교육은 치은염 및 치주질환 등 치아관리의 경각심을 일깨우고, 구강관리의 중요성 및 치아의 구조, 올바른 칫솔질 등을 배우는 시간이 되었다. 교육 후에는 직원들이 칫솔, 치실, 모래시계 등 치아관리 용품들을 받았다.

상주교도소 / 교위 임대욱

박경선 소장 취임

상주교도소는 8월 27일 청사 2층 교육실에서 직원 70여 명이 모인 가운데 박경선 소장의 취임식을 가졌다. 박경선 소장은 취임사를 통해 "직원복지를 향상하는 것은 물론, 수용자 처우에 충실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여 전국 교정기관의 모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EWS

대전지방교정청

대전지방교정청 / 교위 조남욱

멘토링 결연식 개최

대전지방교정청은 7월 30일 대전지방교정청 대회의실에서 전입직원 5명에 대해 환영식을 갖고 '멘토링 결연식'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전입 직원들의 빠른 적응을 도모하고, 직장 내 직원들과의 소통으로 행복한 직장을 만들고자 마련되었다.

대전교도소 / 교감 송재상

몽골국 변호사협회 변호사 참관 실시

몽골국 변호사협회 변호사 11명이 8월 8일 대전교도소를 참관하였다. 몽골국 변호사들은 변호인 접견실, 직조 작업장, 기능공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았다. 특히 변호인 접견실에서 수용자들이 접견하는 모습에 큰 관심을 보이며, 몽골국 변호인 접견시스템과 비교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주교도소 / 교사 김재덕

2018년도 제2회 검정고시 실시

청주교도소는 8월 8일 사회복귀과 대강당에서 수용자를 대상으로 2018년도 제2회 검정고시를 실시하였다. 청주교도소 사회복귀과 대강당에서 실시된 2018년도 제2회 검정고시에는 15명이 응시해 시험을 치렀다. 청주교도소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수용자들이 교도소 내에서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천안교도소 / 교도 김우겸

반부패·청렴 및 공직기강 확립 교육 실시

천안교도소는 8월 14일 반부패·청렴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정화예술대학교 최병철 교수를 초빙해 교육을 실시하였다. 최병철 교수는 공무원으로서의

복무기강 확립, 공무원으로서 청렴한 삶에 대해 각종 사례를 들어 교육을 하였다. 또한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도 강의하였다.

충주여자교도소 / 교사 김은정

영화 '신과 함께' 상영 실시

충주여자교도소는 2018년 8월 6일 아트시네마 대표 김정길 교정위원의 후원을 받아 수용자 약 300명을 대상으로 영화 '신과 함께 : 죄와 벌'을 상영하였다. 이 행사는 수용자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내면의 인성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영화 '신과 함께 : 죄와 벌'은 주인공이 사후에 7번의 재판을 받으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반성한다는 내용으로 수용자들은 유쾌한 장면엔 웃음을 터뜨리고 후반부에는 눈물을 흘리는 등 크게 호응했다.

공주교도소 / 교위 이경민

시원한 아이스크림 나눔 행사 실시

공주교도소는 8월 7일부터 13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공주시 초대교회 목사, 공주교도소 직원 나눔회, 공주 공산성로타리클럽으로부터 아이스크림을 3,500개를 전달받았다. 아이스크림은 직원과 수용자들에게 제공되었다.

충주구치소 / 교위 조만택

승진 및 전입 직원 축하 행사 실시

충주구치소는 7월 30일 황태주 교감 등 6명의 승진 및 전입을 축하하는 행사를 가졌다. 직원들의 따뜻한 환영과 박수 속에 진행된 이날 환영식에서 윤창식 소장은 "앞으로도 많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항상 자기개발과 연구로 앞날에 무한한 발전이 함께하길 바란다"는 환영의 인사를 건넸다.

홍성교도소 / 교도 김영선

불법촬영카메라 자체 단속 점검 실시

홍성교도소는 불법촬영카메라 자체 단속반을 만들어 8월 1일 자체점검을 실시하였다. 자체 단속반은 청사 및 민원실 화장실 보안과 여사동 및 대강당 교육실 등을 집중 점검하였다. 자체 점검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불법촬영카메라 자체 단속반은 앞으로도 수시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천안개방교도소 / 교도 하대웅

수용자 사회견학 실시

직원 4명, 수용자 34명, 교정위원 1명으로 구성된 '보라미 봉사단'은 8월 9일 천안시 소재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요양시설 생활관의 환경미화 및 청소를 실시하였다. 특히, 수용자들은 기동성심원(요양원)을 방문, 생활관을 깨끗이 청소하고 정돈하며 보람을 느꼈다.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 교도 유제영

수용자 지원에 감사 인사 전달

홍성교도소 서산지소는 8월 유례없는 폭염을 맞아 수용자를 위한 얼음물, 아이스크림, 과일 등을 꾸준히 지원받았다. 이에 감기천 소장은 8월 2일 "혹서기를 맞이하여 힘든 수용자들을 위해 기부해 준 교정협의회 및 교정위원, 한국수자원공사 서산권지사 등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교정행정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한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대전교도소 논산지소 / 교사 정연호

취업 수용자 위한 영화 상영 실시

대전교도소 논산지소는 8월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취업 수용자의 건강을 위해 폭염취약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실외 운동을 대체한 영화 상영을 실시하였다. 대상 인원은 운영지원 및 위탁작업장 수용자 약 60여명으로, 교정교화에 적합한 다양한 영화를 상영하였다.



대구지방교정청



경북직업훈련교도소



김천소년교도소



대전지방교정청



충주교도소



홍성교도소 서산지소

광주지방교정청

광주지방교정청 / 교위 김윤규

전 직원 오찬 간담회 실시

광주지방교정청은 8월 1일 전임 직원 노회중 교감 등 5명을 환영하기 위해 전 직원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전임 직원들은 이번 오찬을 통해 낯선 곳에서 근무해야 하는 심적 부담과 긴장을 해소하였으며, 광주지방교정청의 한 가족으로서 자긍심을 고취시켰다.

광주교도소 / 교사 이병석

광주교도소 직장어린이집 착공

광주교도소는 8월 1일 외부정문 인근에 직장어린이집 신구 설치를 위한 첫 삽을 떴다. 내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이 사업은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워라밸 문화를 실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교도소는 일정 수준 이상의 여유가 있을 경우 지역아동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어린이집을 개방할 예정이다.

전주교도소 / 교사 김음희

얼음생수 나눔 행사 실시

전주교도소 교정협의회는 8월 16일 전주교도소에 생수 1만 개를 기증하며 사랑의 마음을 전했다. 생수는 계속되는 무더위에 지친 수용자들이 건강하게 생활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전주교도소 교정협의회에서 마련하였다.

순천교도소 / 교사 최창래

직원 자녀 학생 대상 봉사활동 실시

순천교도소는 7월 26일부터 이틀간 직원 자녀를 대상으로 '방학 중 학생 봉사활동'을 실시하였다. 직원 자녀들은 보라미 준법교실, 참관 등 다채로운 체험을 통해 그동안 몰랐던 부모님의 근무환경과 애로사항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전주교도소

목포교도소 / 교도 박경용

목포상무유도관 참관 실시

목포교도소는 8월 13일 목포상무유도관 유수현 사범 등 10명을 대상으로 참관을 실시했다. 중학교에 재학 중인 참관인들은 이날 행관을 통해 수용시설 등 구내·외 시설을 둘러보았다. 또한 참관인들은 미디어를 통해 간접적으로 체험했던 교정시설을 실제로 보면서 교정공무원이 하는 업무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군산교도소 / 교사 정임택

사랑의 헌혈 행사 실시

군산교도소는 헌혈량 확보에 기여하고자 8월 13일 단체 헌혈 봉사를 실천하였다. 이번 헌혈 행사는 대한적십자사 전북혈액원의 협조를 받아 이동 헌혈버스에서 실시되었다. 부족한 혈액 확보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많은 직원들이 참여하며 헌혈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제주교도소 / 교사 홍지호

수용자 아버지학교 운영

제주교도소는 지난 8월 9일부터 8월 30일까지 4주 차에 걸쳐 수용자 21명을 대상으로 아버지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번 수용자 아버지학교는 수용생활로 인하여 일어나는 가족 간의 불신·미움 등의 갈등관계를 해소하고 범죄로 무너진 아버지상을 바로 잡아, 건강한 가족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장흥교도소 / 교위 송판근

직원 인권교육 실시

장흥교도소는 8월 2일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직원 인권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초빙된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재운 교수는 구금시설관련 국가인권위원회 주요결정 사항 및 구금과 관련된 주요 인권



군산교도소

쟁점에 대해 인권교육을 진행하였다. 장흥교도소는 앞으로도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직원들을 대상으로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남교도소 / 교도 조기호

사랑의 헌혈 행사 실시

해남교도소는 8월 27일 사랑 나눔 운동의 일환으로 헌혈 행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행사는 안정적인 혈액 수급에 기여하고 이웃과 따뜻한 사랑을 나누고자 마련되었다. 해남교도소는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열린 교정행정으로 행복한 교정, 행복한 국민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

정읍교도소 / 교사 안하옥

얼음생수 및 아이스크림 지급

정읍교도소는 8월 8일과 8월 19일 각각 광주지방교정청 교정연합회장 및 정읍교도소 교정연합회로부터 기증받은 얼음생수 2,100병과 아이스크림 600개를 전 수용자에게 지급하였다. 정읍교도소 교정연합회 회장은 "요즘 같은 기록적인 더위에 힘들어하는 수용자들을 위해 준비하였다"며 수용자들이 잠시라도 더위를 잊고 건강한 수용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읍교도소

NEWS

교정공제회

수익형 빌딩 매입

교정공제회는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공제회의 재정 자립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서울시 노원구에 위치한 KT 공릉지사 건물을 8월 31일 매입하였다. 서울 동북권 내에서 희소성이 높은 대규모 필지로, 향후 개발 등을 통해 해당 부지 수익을 증대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군교도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동부지소 부대방문

국군교도소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동부지소는 9월 4일 출소자들의 취업지원을 위한 만남을 가졌다. 이날 경기동부지소 최규삼 소장 등 3명이 국군교도소를 방문하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허그일자리'의 활성화 및 지원대상자 확대 등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서 진행하는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은 취업설계, 직업능력개발, 취업성공 및 사후관리 등 전문 상담가의 1:1 단계별 지원을 받는 통합취업지원프로그램이다. 국군교도소는 출소자들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2017년부터 경기동부지소에서 '허그일자리지원' 프로그램을 지원 받아 운영하고 있다.



의정부교도소
교위 정미라

서울

독서 분위기 정착 및 정기적 봉사 실시

여성 수용동 근무 시 수용자들에게 '책 읽는 교도소 만들기' 프로그램을 적극 알리고 개인별 독서지도를 진행해 수용동 내 독서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또한 중증 여성 천식환자의 응급상황을 발견하고 외부병원으로 후송하는 등 신속한 조치로 교정사고 예방에도 적극 기여하였다. 직장 내 봉사동호회인 '사랑나눔회' 결성에 참여하여 도배봉사 및 연탄배달 등 정기적인 봉사활동도 실시 중이다.



홍성교도소
교위 신복진

대전

부식물 관리 철저 및 적극적인 봉사 참여

수용자 식량 담당으로서 수용자에게 양질의 음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각종 부식물 관리 및 검수에 노력하였으며, 안전한 급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식중독 예방 활동과 취사장 환경 개선 등에 적극 힘썼다. 또한 매월 정기적으로 장애인 복지관에 기부를 하고 소외된 이웃에 대한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밀양구치소
교사 배재영

대구

수용자 의료 처우 및 의료 행정 발전에 기여

매일 수용자 진료 인원을 파악하여 동행·순회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처우를 받지 못하는 수용자가 없도록 하여 수용자 의료처우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의료과 약품조제 및 비상약품관리 담당 근무 시 의약품의 철저한 관리로 의약품 남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는 등 의료행정 발전 및 수용자 건강 증진에 기여하였다.



정읍교도소
교위 김건국

광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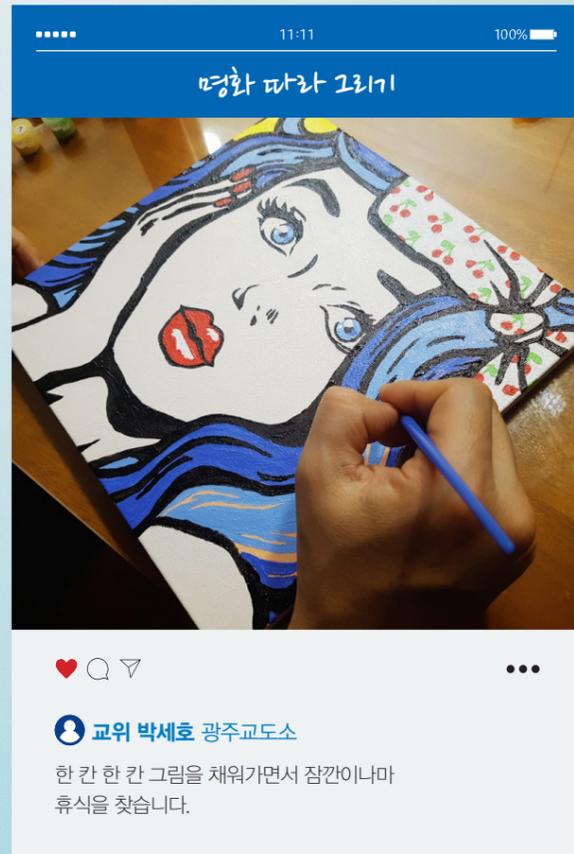
전문성 향상으로 원활한 업무 수행

보안과 분류실 신입심사 및 운영지원직업자 선정을 담당하며, 맡은 업무에 열정을 가지고, 전문성을 키워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하였다. 또한 원활한 신입심사 및 운영지원 직업자 선정 작업이 이루어지게 노력하였으며, 밝은 직장 문화 조성에 기여하였다.

모범공무원입니다
소개합니다

반짝이는 창의로 삶을 꾸미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월간 <교정> 9월호 교정스타그램에서는 창의적인 활동으로 삶을 빛내는 교정공무원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특별한 창조가 일상에 깃든 이들의 모습들을 감상해 보세요.



교정 스타그램에 참여해주세요.

교정 스타그램은 <교정>을 아끼는 교정공무원과 독자 여러분의 참여로 꾸며집니다. 매 호 정해진 주제에 어울리는 사진과 짧은 문구를 메일로 보내주시면 지면을 통해 소개해드리며 문화상품권(1만 원 권)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월의 테마 컬러는 'BROWN', 주제는 '화합'입니다」

'화합'이라는 주제와 어울리는 사진(1MB 이상)과 사연을 보내주세요.

신청 : correct2015@naver.com (문의 : 02-2110-3461) / 소속, 직급, 이름, 휴대폰 번호 必

'창의'를 살게 해주는 책들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가치 '창의'. 무엇인가를 창조하거나 새로운 생각을 떠올린다면, 우리는 관습에서 벗어나 반짝이는 일상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 '창의성 키우기'에 도움을 주는 책들을 통해 그 하루에 한 발짝 다가가 보는 것은 어떨까.



창의성을 지휘하라

에드 캣멀, 에이미 월러스 저 / 윤태경 역 / 와이즈베리

기업의 대표적 롤모델인 픽사와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성공신화를 진두지휘해온 캣멀이 30여 년간의 경영 경험과 통찰을 집약하고 두 기업 검증된 사례를 바탕으로 쓴 책이다. 두 기업의 아이디어와 역량을 조직적으로 끌어모으고 발전시키는 방법에 대한 저자의 경험과 통찰이 한가득 녹아있다. 자발성과 창의성, 문제해결력을 극단으로 끌어올리는 조직문화, 아이디어가 보호되고 육성되는 프로세스, 수백 명의 아이디어와 견해가 집약되고 수렴되어 고도의 '집단창의성' 작업이 이루어지는 회의 및 제작 프로세스 등 픽사와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창의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공'을 이룰 수 있었던 핵심들이 상세하게 다뤄진다.



생각의 탄생

로버트 루트번스타인, 미셸 루트번스타인 지음 / 박종성 역 / 예코의서재

분야를 넘나들며 창조성을 빛낸 사람들의 13가지 생각도구를 전해주는 책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인슈타인, 파블로 피카소, 마르셀 뒤샹, 리처드 파인먼, 버지니아 울프, 나보코프, 제인 구달, 스트라빈스키, 마사 그레이엄 등 역사 속에서 가장 창조적이었던 사람들이 사용한 13가지 발상법을 생각의 단계별로 정리하였다. 즉, 천재들이 자신의 창작 경험을 통해 '생각'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으며, 생각하는 법을 어떻게 배웠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그들의 발상법을 관찰, 형상화, 추상, 패턴인식, 유추, 몸으로 생각하기, 감정입힘 등 13단계로 나누어 논리정연하게 제시할 뿐만 아니라, 직관과 상상력을 갈고 닦아 창조성을 발휘하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창의가 천재들만의 전유물이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천재들의 창의력

로드 주드킨스 지음 / 마도경 역 / 새로운제안

혁신과 독창성에 승부를 걸어야 하는 시대다. 예술계의 하버드라 일컬어지는 대학(Central St Martins College of Art)에서 수십 년 넘게 창의력 강의를 하고 있는 로드 주드킨스가 천재로 추앙받고 있는 전 세계 대가들의 성공 습관을 정리했다. 그가 설파하는 주장은 명료하다. 창의력은 특별한 사람만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인간에게 내재된 천성이라는 것. 다만, 발휘하는 기술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베토벤, 피카소, 마티스, 디킨스, 비틀즈, 마네, 고다르 등 사상계, 예술계의 거장들이 어떤 창의적인 사고와 행위로 성공하게 되었는지가 57가지로 정리됐다. 이를 통해 우리는 창의력 키우기를 연습해보고,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코리아 세일 페스타 단 10일간



2018.09.28(금)~10.07(일)



www.koreasalefesta.kr

KOREA SaleFESTA
쇼핑관광축제

이달의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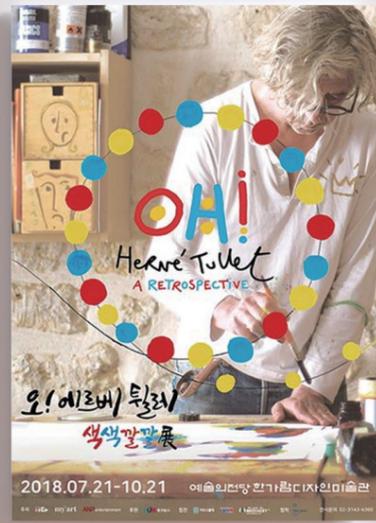
오감으로 느끼는 미술, 뮤지컬에 서커스가 더해진 무대, 심리의 굴곡을 다루는 연극까지. 특별한 공연과 전시들로 감성을 깨울 시간이 찾아왔다.



ART

기간 2018년 9월 7일 ~ 2018년 11월 4일
장소 유니플렉스 2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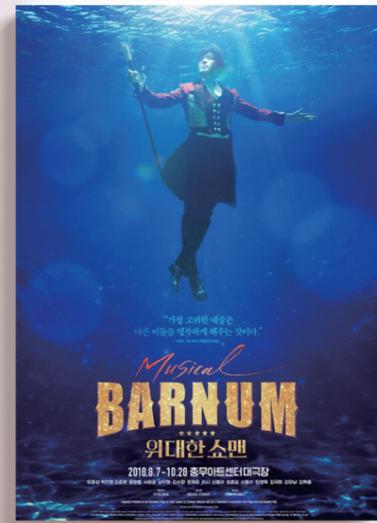
남자들의 진한 우정을 담은 블랙 코미디이다. 배우, 연출가, 영화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프랑스 극작가인 야스미나의 작품으로, 마크, 세르주, 이반 세 남자의 이야기를 다룬다. 연극은 2억이 넘는 거액의 그림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감정의 변화를 일상적인 대사로 가감 없이 드러내며 인간의 미묘한 심리를 통찰한다. 현재까지 15개 언어로 번역돼 35개 나라에서 공연되었다.



오! 에르베 툴레 색색깔깔展

기간 2018년 7월 21일 ~ 2018년 10월 21일
장소 예술의전당 한가람디자인미술관

프랑스 최고의 인기 일러스트레이터이자 창의예술가로 유명한 '에르베 툴레'의 아시아 첫 대규모 개인전이다. 이번 전시는 '작가의 마공개작을 포함한 회화 작품',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감성과 감각을 활용해 체험할 수 있는 복합예술 작품' 등 원본 작품 500여 점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관람객들이 보고 듣고 만지는 등 오감으로 에르베 툴레의 작품을 체험할 수 있는, 색다른 재미를 제공한다.



바넘: 위대한 쇼맨

기간 2018년 8월 7일 ~ 2018년 10월 28일
장소 충무아트센터 대극장

19세기 중반 미국, '쇼'가 삶의 전부이자 스스로를 '사기꾼'이라 칭했던 피니어스 테일러 바넘의 모순 가득했던 삶을 다루는 뮤지컬이다. 서커스와 뮤지컬의 만남이 최대 관람 포인트인 이 작품은, 화려함 속에 갇힌 인간의 생애도 세밀하게 다루며 관객들을 몰입시킨다. 유준상, 박건형, 김준현 등 내로라하는 배우들이 출연하며 극의 활기를 더한다.

평범한 우리가
세상을 바꾸는 방법

공익신고



공익신고자 보호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 | | | | |
|-----------|---|-----------|--|
| 보호 | • 비밀보장,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 | 상담 |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 보상 | • 내부 공익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지급
• 공익에 기여한 경우 최대 2억원의 포상금 지급
• 구조금(치료비, 이사비, 소송비용 등) 지원 | 신고 | • 홈페이지 1398.acrc.go.kr
• 우편(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7) |

신고대상 : 6대 분야, 284개 법률 위반행위

- | | | |
|----------------------------|-----------------------|----------------------------|
| 건강 | 안전 | 환경 |
| - 불량식품 제조·판매
- 무면허 의료행위 | - 부실시공
- 소방시설 미설치 | - 폐수 무단방류
- 폐기물 불법 매립 |
| 소비자이익 | 공정경쟁 | 기타 공공의 이익 |
| - 개인정보 무단 유출
- 허위·과장광고 | - 기업 간 담합
- 불법 하도급 | - 거짓 채용광고
- 방위산업기술 불법사용 |



동행질서



01

국내 최대의 영화 촬영용 교도소세트장이며 전국의 인기 관광지로 거듭나고 있는 익산 교도소세트장에 가족·연인·친구와 함께 방문해 즐겁게 관람한다.



03

교정 홍보관 인증샷이 포함된 익산 세트장 방문후기를 자신의 '네이버' 블로그에 '전체공개 및 검색 허용'으로 올린다.



02

입구 우측에 있는 '법무부 교정본부 홍보관'에서 다양한 인증샷을 찍는다.
트릭아트 포토존도 마련되어 있어요!



04

블로그 주소를 아래 메일로 보낸다.
이름 및 전화번호 필수!
yjw1219@korea.kr